

심 치 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적성의전>의 서사공간에 따른 효의
실현과정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연안나

<적성의전>의 서사공간에 따른 효의
실현과정

심 치 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연 안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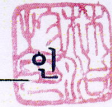
인 준 서

연안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강혜선



심사위원 임치현



심사위원 서치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적성의전>은 현재까지 방각본 11종, 필사본 16종, 구활자본 5종이 발견된 작품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져왔으며, 방각본의 경우 경판, 완판, 안성판 세 곳에서 모두 간행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넓은 지역에서 고루 읽혔던 작품이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필사본의 경우 세책본도 발견되고 있어 당대 <적성의전>이 대중성을 갖춘 작품으로 꽤 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적성의전>은 안평국의 왕자이자 효성이 깊은 인물인 성의가 모후의 병을 고칠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 서천서역(西天西域)으로 길을 떠나고, 형항의 불측한 모함으로 두 눈이 멀고 온갖 고초를 겪다가 중국의 부마가 되어 마침내 안평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 서사를 관통하는 중심축은 효사상이다. 성의가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날 결심을 하는 것도 그의 효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두 눈을 잃고 타국에서 고초를 겪을 때 성의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것도 부모를 향한 효심 덕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본국으로 귀환하여 왕과 왕후를 모시는 것으로 기나긴 ‘효의 여정’을 마칠 수 있었다.

이처럼 <적성의전>의 중심사상이자 주제의식인 효는 당대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던 유교적 덕목이었다. 따라서 효는 부모와 자식 혹은 가족과 나아가서 국가를 이루고 지탱하는 사상적 기반으로 받아들여지고 강조되었다. 이런 이유로 <적성의전>의 서사에서 펼쳐지는 주인공 성의의 ‘효의 실현’ 과정은 작품이 향유되던 시기의 독자들의 의식세계와 궤를 같이 했을

것이며, 효를 중요시여기고, 강조하던 사회에서 주인공 성의의 지극한 효행은 깨달음과 감동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성의전>에 등장하는 세 곳의 공간과 공간의 이동 속에서 보이는 신이하고 기적적인 요소는 작품의 흥미적인 요소로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주인공 성의의 ‘효의 실현과정’과 긴밀하게 작용하여 주제의식을 뒷받침 해주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서천서역이라는 서사공간은 탐색담의 모티브를 통해 성의의 효의 동기와 효의 주체자로서 자격의 획득을 의미하고 있으며, 중국은 영웅담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안맹이 된 성의가 고난을 겪는 공간인 동시에 회복의 공간이다. 또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위의 획득과 성의의 성장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성의는 영웅적 지위의 획득과 자격이 부여되고 성의는 영웅으로 성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안평국은 성의의 효의 탐색 여정이 출발하는 곳이자 복귀하는 곳으로 영웅으로 성장한 성의의 복귀와 함께 ‘효의 완성’이 이루어지며, 방해자의 징치와 왕위 계승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즉 성의에게 효는 ‘영웅의 자격’과 ‘영웅의 성취’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작용하며, <적성의전>에서 효는 곧 ‘영웅성’을 내포하고 있다.

<적성의전>은 지극한 효심을 지닌 주인공 성의를 통해 ‘효의 실현과정’을 구현해냈으며, 철저하게 효라는 주제를 작품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적성의전>의 ‘효의 실현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형제간의 갈등은 효의 강조를 위한 일종의 악인 형상을 내세운 서사적 장치이며, 결말에서 항의가 개과천선하지 않고 죽음으로 징치되는 것 역시 ‘형제간의 우애’라는 주제와 상관없음을 입증해준다.

효의 의미와 가치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여러 편의 효행설화와 무속신화

인 <바리데기>, 자식의 희생을 통한 지극한 효성을 다룬 <심청전>, 그리고 <적성의전>을 예로 들어 ‘자식의 고난에 따른 효의 완성’이라는 보편적인 효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적성의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작품으로 보이는 서유영의 <육미당기>에서는 본래 <적성의전>이 가지고 있던 효의 의미를 계승하는 한편 형제간의 갈등을 통한 우애를 함께 강조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적성의전>에서 강조된 효사상은 곧 불교 설화에서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문학적 태동을 보여주는 것이며, 소설화의 과정에서 구심점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효는 당시의 사회·문화·정치·사상을 관통하는 사상적 기반의 핵심으로 서사문학 전반에 걸쳐 향유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동과 교훈적 깨달음을 제공함으로써 당대 보편적 정서의 가장 적절히 부합하는 주제의식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적성의전>에서 효가 차지하는 보편성과 그 가치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검토	4
3. 연구방법	15
II. 효의 문학적 전통과 수용	19
III. <적성의전>의 서사공간에 따른 효의 실현과정	26
1. 효의 동기와 탐색담	28
1) 효의 주체와 자격의 획득	28
2) 효의 발현과 공간의 확대	33
3) 탐색담으로서의 ‘서천서역’의 의미	45
2. 효의 지속과 영웅담	53
1) 새로운 여정과 극적인 구원	53
2) 고난과 회복의 계기	58
3) 영웅성 획득으로서의 ‘중국’의 의미	71
3. 효의 완성과 복귀담	79
1) 악인 정치의 필연성	79
2) 다양한 효의 실천과 진정성	92

3) 효의 완성으로서의 ‘안평국’의 의미.....	95
IV. 고전소설이 갖는 효의 보편성과 그 가치.....	99
V. 결론.....	105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I.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 혹은 유교 국가라고 불릴 만큼 유교적 덕목이 국가 전반에 걸쳐서 강조되던 사회였다. 그와 더불어 유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중요시되었던 효사상 역시 강조되었다. 효사상의 강조는 곧 효 정신의 실천과 함께 자식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가족은 물론 국가를 이루는 근간으로 여겨졌다.

효의 강조는 사회와 문화의 전반적인 사상적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문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소재 및 주제로 자리매김 하였다. 우리는 흔히 효를 논할 때, 판소리계 고전소설인 <심청전>의 주인공 ‘심청’을 떠올린다. 맹인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스스로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의 모습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효를 행하고자 하는 인신공희(人身供犧)적 효행은 비장함과 함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심청의 희생적인 효행은 그 비장함과 더불어 용궁이나 개안과 같은 신이한 설정을 통해 그 감동을 배가시킴은 물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오랜 세월이 걸쳐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심청의 효행이 전해주는 감동과 교훈은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심청전>과 더불어 고전소설 에서 효를 주제로 주인공의 지극한 효행을 담은 또 다른 대표적인 작품으로 <적성의전>을 들 수 있다. <적성의전>은 방각본의 경우 경판, 완판, 안성판 모두 그 이본이 존재하기에 광범위한 지

역에 전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또한 필사본과 구활자본으로도 전해지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읽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적성의전>의 효행담 역시 수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적성의전>은 효를 주제로 다룬 고전소설 작품으로 주인공 성의의 희생적인 효와 효를 실현하는 과정이 돋보인다. <적성의전>의 서사는 모후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는 효자 성의의 구약 여정으로 전체적으로 탐색담의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세 번에 걸친 공간의 이동이 효의 실천을 더욱 공고하게 해준다. 특히 공간의 변화에 따른 모티프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서천서역, 중국, 안평국은 각각 탐색담과 영웅담, 그리고 복귀담의 모티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서 주인공 성의는 효의 실현을 구현해내고 있다.

<적성의전>은 주인공 성의가 효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성의가 안맹이 되어 본국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타국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시련이 성의의 친형인 항의의 공격과 방해에 의한 것으로 일종의 형제간의 갈등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의의 공격과 방해는 어디까지나 성의의 효가 실현되는 과정을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성의에게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여 그 효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강조해 주기 위한 설정이다. 그러므로 <적성의전>에 등장하는 세 개의 공간 속에서 성의가 겪는 일련의 사건과 과정들은 성의의 효의 실현과정 그 자체이며, 작품이 지향하는 주제의식 역시 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성의전>에서 보여주는 항의의 불측한 행동과 심성으로 말미암은 갈등을 두고 ‘형제간의 갈등’을 통한 ‘형제간의 우애’의 강조로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논의의 출발로 삼고자 하였다.

<적성의전>의 주제를 ‘효’와 ‘형제간의 우애’로 보는 연구는 비교적 초기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¹⁾ 물론 동생 성의를 향한 형향의 적대감의 표출이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살해의 위협 등은 분명 형제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의의 효행과 그 효를 실현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더욱 돋보이게 해주기 위한 장치로 <적성의전>은 철저하게 성의의 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작품이다. 즉 형제간의 갈등은 <적성의전>의 주제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적성의전>의 주제의식을 효와 형제간의 우애가 동시에 강조된 작품이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성의전>의 주제의식인 효가 우애보다 우위에 있으며, 그것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 인권환은 <적성의전>의 근원설화의 전파와 전승 과정을 밝히면서 작품의 주요 모티브를 분석하고, <적성의전>은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한 효행이 강조된 작품이며, 동기간의 우애를 강조한 것으로 보았다.(「고대설화의 불교적 고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61.) 김기동 역시 <적성의전>을 효와 우애가 주제인 작품으로 보았으며, 이는 권선징악적인 주제를 의도한 작품이라고 하였다.(『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61.) 이와 같은 초기연구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적성의전>의 주제의식이 ‘효’와 ‘형제간의 우애’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어져왔다. 손미경은 <적성의전>의 형제간의 갈등이 근원설화인 <선사태자입해품>에서는 선형악제(善兄惡弟)가 작품 전개의 중심이 되어 무량보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소설에서는 상황에 따라 형제의 선악이 설정되고 갈등의 양상도 현실적으로 변모된 것으로 보고, <적성의전>의 형제간의 대립은 효와 우애의 이념으로 보고자 하였다.(「<적성의전>의 서사적 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효실은 <적성의전>을 형제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착한 형제와 악한 형제의 갈등이 소설의 전면에 내세워져 형제간 우애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결말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형향의 죽음이 징치되는 것은 악덕을 비판하고 우애의 소중함을 강조하려고 의도했던 것이라 분석하였다.(「고소설에 나타난 형제갈등 연구 -<창선감의록>과 <적성의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적성의전>의 경우, 불교 설화와의 영향 관계와 이를 통해 근원설화를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는 물론 탐색담의 구조와 구약여정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다양한 문학이론을 통해 비교·분석한 연구, 탐색의 구조를 분석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한 연구, 타작품과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한 연구, 그리고 갈등구조나 인물형상 또는 주제의식인 효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 연구, 또는 이본간의 비교를 통한 작품 분석 등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까지 <적성의전>만을 대상으로 작품을 분석한 연구 성과가 비교적 풍부한 편은 아니라는 점, 주제의식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내세워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적성의전>에서 공간의 이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주인공과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공간에서 펼쳐지는 주인공의 행적과 효의 유기성이 어떤 관계망을 갖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전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효의 보편성과 그 가치로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적성의전>은 작자 및 창작 연대가 미상인 국문소설로 방각본과 필사본, 구활자본 등 다양한 이행방식으로 전해진다.²⁾ 발견되는 이본의 수 역시 적

2) 현재까지 확인된 <적성의전>의 이본은 방각본 11종, 필사본 16종, 구활자본 5종이며, 유포본은 방각본 11종, 필사본 16종, 구활자본 5종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소개하면 방각본은

지 않고, 방각본의 경우에는 경판, 완판, 안성판 모두 전해지고 있으며, 구활자본의 경우 여러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적성의전>은 오래 시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제법 두터운 독자층을 거느렸던 작품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필사본의 경우 세책본도 발견되고 있어, <적성의전>이 세책가에서도 주목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대중에게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향목동 세책본의 경우 경판계열인 안성판 19장본을 기초대본으로 하고 완판74장본을 참고대본으로 삼아서 새로운 이본의 창출을 시도하였는데 이것은 시장성과 독자층을 겨냥하여 기존의 텍스트와 차별성을 두면서도 독자층의 취향과 익숙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며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노력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 즉 향목동 세책본은 독자의 취향과 시장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이본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이본이며, <적성의전>이 독자와 소설의 유통에서 차지했던 존재 가치와 의의를 엿볼 수 있게 해주기에 중요하다.³⁾

다양한 이본의 수만큼이나 <적성의전> 관련한 선행연구는 이미 오래 전부

완판 3종, 경판 6종, 안성판 2종이 전하며, 필사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김동욱 소장본, 조동일 소장본 등이 있으며, 구활자본의 경우 세창서관본, 한성서관본, 영창서관본, 박문서관본, 회동서관본 등이 대표적이다. 이본 소개에 관련한 연구는 <한국고전문학전집>(이현홍, 1996.)과 <장서각 고소설 해제>(국학진흥연구소사업추진회, 1998)를 토대로 <적성의전>의 이본을 밝힌 신명래의 「적성의전의 서사구조와 소설사적 위치」(한국어와 문학8, 2010)를 참고하였다. 이본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경판 자료는 <31장본>, <30장본>, <23장본>, 안성판<19장본>으로 총4종의 이본이 전해진다는 유광수(「경판본 <적성의전> 이본고」, 열상고전연구18, 2003)의 주장이 있어 현전하는 이본수에 대한 이견 또한 확인할 수 있다.

3) 세책본 <적성의전>은 한글 필사본으로 현재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상하 두 권(2권 2책)으로 각 권당 30장으로 총 60장이다. 매 쪽 당 11행, 매 행 당 12~16자 정도로 필사되어 있다. 전형적인 세책본 고소설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각 권 말미에 “세을 묘 스월 일 향목동 서”라는 간기가 있어, 1915년(乙卯) 향목동 세책점에서 필사해 유통하던 세책임을 알 수 있다. (유광수, 「세책본 고소설의 성립 연원과 제작 방식에 대하여 -향목동 세책본 <적성의전>(1915)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권, 한국고소설학회, 2010, 참조)

터 진행되어왔다. <적성의전> 연구는 1937년 한용운⁴⁾이 ‘『현우경』 중의 「선사태자입해품」을 번역한 것으로 다소의 각색(脚色)을 가하였을 뿐이요’라고 언급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연구는 대부분 <적성의전>의 근원설화와 관련된 것으로 불교적 설화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적성의전>의 근원을 두고 『현우경』의 「선사태자입해품」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이후의 <적성의전>연구는 불교적 설화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과 <선사태자입해품>이나 <선우태자전>등의 비교를 통해 근원을 찾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김태준⁵⁾은 동화전설의 전파론에 입각하여 <적성의전>의 근원과 관련하여 성의의 효성과 개안을 <심청전>과 대비하고, 서천취약은 현장법사의 ‘서천취경’과 같이 상상의 세계를 허구적으로 구성한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기러기의 전신과 성의의 표류도 조선에서는 드물게 보는 불교적 색채가 짙은 표류담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적성의전>이 불교적 설화의 수용에 의한 것이라 보았다.

인권환⁶⁾은 <적성의전>의 근원설화의 전파와 전승 과정을 밝혔다. 불교적 설화가 불경의 전래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선우태자>를 들었다. <선우태자>는 고려시대부터 독립 설화로 나타나고 있고, 설화중심의 설화집이라는 점을 근거로 <적성의전> 근원설화의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 작품의 중요 모티브로 주인공 형제와 맹안, 출가와 도사, 왕녀와의 결혼과 악기, 개안, 조류의 전신을 들었으며, 이 모티브와 原典 대비를 통해 그

4) 한용운, 「역경의 급무」, 『佛敎』 총3호, 1937, 5.

5)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41~143쪽.

6) 인권환, 앞의 논문.

전파과정과 변이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적성의전> 작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불전설화의 특색이 변질되어 <적성의전>에서는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한 효행이 강조되어 있고, 동기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권선징악형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살펴본 <적성의전>의 대표적 초기 선행연구는 대부분 불교 설화와 근원 설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연원을 밝히기 위한 비교·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인권환의 연구에 이르러서는 개안담, 형제의 갈등,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한 효행의 강조 등 주요 모티브를 분석하여 불교계 설화의 전래 과정이 불경의 전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보인다. 반면에 <적성의전>의 주요 모티브 중에 형제의 갈등과 효행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동기간의 우애 역시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한 것은 이때까지의 연구가 불교 근원 설화를 밝히는 것에 치중하여 작품론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성의전>의 초기 연구는 불교와의 관계와 근원 설화를 밝혀 본격적인 <적성의전> 연구의 초석을 마련해 주었으며, 작품에 담겨 있는 사상적 뿌리와 정신 세계의 원류를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초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적성의전> 연구는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본 논문과 관련이 있는 ‘<적성의전>의 서사공간에 따른 효의 실현과정’에 연관된 선행연구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서사구조나 탐색담의 관점에서의 연구, 인물의 형상과 사건, 그리고 갈등 구조 등을 통한 주제의식 분석 등과 연관성이 있는 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남상면⁷⁾은 <적성의전>의 근원이 되는 불전을 함께 다루면서 작품을 이

루는 구조를 모두 17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성의가 일영주를 구해 오는 ‘효행설화’와 성의가 개안에 이르는 ‘개안설화’, 그리고 채란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영웅설화’로 분석하였다. 앞선 연구인 인권환의 견해를 따라 작품의 하위 구조를 이루는 설화에 약간의 변용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적성의전>의 근원은 불전에 있다고 보는 그의 견해는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성의전>의 구조를 총 17개로 세분화하고, ‘효행설화’와 ‘개안설화’, 그리고 ‘영웅설화’로 분석한 점은 <적성의전>의 본격적인 서사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주목할 만하다.

<적성의전>을 탐색담의 구조로 분석한 연구도 이어졌다. 양한석⁸⁾은 <적성의전>의 작품구조를 탐색주지로 보았다. 그는 오든(Auden)이 추출한 탐색의 6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한국 서사문학의 고대소설에도 적용시켜 탐색의 개념과 실상을 끌어내고자 했으며, <적성의전>이 탐색주지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작품이라 하였다.⁹⁾ 그 근거로 그림(Grimm)의 <<생명수(The Water of Life)>>의 구조를 비교하였다. 그는 영웅으로서의 성의와 적대자로서의 항의가 형제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으며, 탐색의 무대가 인간세계가 아닌 불교 극락세계에

7) 남상면, 「적성의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8) 양한석, 「적성의전에 나타난 탐색주지」,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9) 양한석은 오든(Auden)의 탐색의 6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적성의전>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림(Grimm)의 『생명수(The Water of Life)』와 <적성의전>의 구조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 여섯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적용된 <적성의전>과 <생명수>의 탐색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물로써의 일영주와 생명수, 그리고 결혼과 왕위계승

둘째, 일영주와 생명수를 얻기 위한 오랜 여행.

셋째, 올바른 품행과 성품을 소유한 영웅으로서의 성의와 셋째 아들.

넷째, 성의와 셋째 아들의 고난 극복.

다섯째, 방해자로서의 항의와 두 형들.

여섯째, 조력자로서 파초일을 탄 선관과 난장이

서 이루어지는 것은 작품의 내용에서 비롯되는 논리적 모순이나 허탄성이 진실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탐색의 인물은 출발, 착수, 복귀의 순으로 사건 진행에 관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적성의전>의 서사구조를 탐색의 경로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만 새로운 연구방법의 적용에 치중한 나머지 그 탐색담의 구조 속에 펼쳐진 인물이나 사건, 그리고 그 탐색의 과정을 통해 구현해 내고자 했던 작품의 주제의식 등의 깊이 있는 문제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작품 연구로서의 한계를 보인다.

<적성의전>을 탐색담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졌다. 김숙원¹⁰⁾은 <적성의전>을 서사무가인 바리공주와 비교하여 탐색담적 성격을 구명하고자 했다. J.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사용한 주인공의 신화적 모험 과정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바리공주가 작품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인공의 서사적 행위가 완결된 문학형식으로 되어 있는 <적성의전>과 <바리공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적성의전>과 <바리공주>는 주인공의 서사적 행위로 완결된 탐색주지이며, 출발-시련-복귀의 탐색구조는 성년기에 이른 주인공이 구약여행을 떠나 시련을 겪고,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귀환의 거부가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귀환해 새로운 세계와 기존의 세계에서 주인공이 된다고 하였다. 즉 결핍상태의 주인공이 구약여행을 거침으로써 결핍된 자격을 인정받아 새로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적성의전> 탐색담의 의미임을 밝혔다. 그의 논의는 앞선 탐색담

10) 김숙원, 「한국고대서사문학에 나타난 탐색담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으로서의 <적성의전> 연구에서 한걸음 더 발전한 것으로 탐색담의 구조를 신화적 모험 과정의 분석방법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것은 물론 구약여행의 과정에 담긴 의미를 밝히고자 한 점에서 작품의 내면을 분석하고자 했음에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탐색의 구조를 통한 <바리공주>와의 비교·분석에 치중하였기에 <적성의전>의 전반적인 서사와 인물 분석, 그리고 주제의식을 밝히는 데는 미비한 점이 남아 있다.

최정락¹¹⁾은 구조분석을 통해 <적성의전>을 탐색적 주인공의 영웅적 성취를 다룬 작품으로 보았다. 그는 <적성의전>을 왕위계승을 둘러싼 대립이 탐색과정을 매개로 한 주인공의 힘의 획득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소설의 서사적 의미이며, 이는 왕위계승에 대한 기존 관념의 흔들림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주인공은 탐색적 주인공으로서 영웅적 성취를 위한 신이한 힘을 초월적 존재로부터 얻어내는데 이것은 주인공의 지극한 효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작품을 이루는 세 개의 큰 삽화로 일영주를 구해 오는 삽화, 공주와의 결혼 삽화, 형제간의 갈등 삽화로 나누고, 이들 삽화를 다시 14개의 근간화소로 나누는 작업을 하였다.

조춘호¹²⁾는 경판본과 완판본의 이본 비교를 통해 <적성의전>의 구조나 내용을 분석하고, 차이점을 밝히고, 작품의 총체적인 의미를 구현하고자 했다. <적성의전>은 형제간의 우애를 나타낸 작품이 아니라 모후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작품으로 보았고, 핵심서사로 일영주 구득담, 채란공주와의 결연담, 본국으로 귀국시 향의 일행의 모해담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채란공주와의 결연담이 <적성의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로 작용하여 일영주 구득

11) 최정락, 「적성의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12) 조춘호, 「적성의전 연구」, 『국어교육』 15집, 경북대 국어교육연구회, 1993.

담이나 중도 모해담과 같은 전후 사건을 연결해주는 유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최정락과 조춘호의 연구는 탐색의 구조와 이본 비교를 통해 작품의 내적 의미 분석에 더욱 근접하여 <적성의전>의 주제가 주인공의 지극한 효성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조춘호는 <적성의전>의 형제간의 갈등을 두고 ‘형제간의 우애 강조’ 역시 <적성의전>의 주제라고 보았던 기존 연구를 지적하였다. 또한 두 연구자는 <적성의전>의 구조분석을 통해 세 개의 삽화 혹은 세 개의 핵심서사를 밝혔으며, 이를 기반으로 작품 내면의 총체적인 의미 분석과 주제의식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 보여주었던 불교 설화와 근원 설화와의 비교 혹은 연관성, 그리고 탐색담의 구조에 치우쳐있던 연구적 한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작품의 내적인 분석에 힘을 실어 <적성의전>의 주제가 형제간의 우애 강조가 아닌 주인공의 지극한 효성을 강조하는 것임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김현양¹³⁾은 <적성의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가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본의 양이나 불교설화로부터 출발하여 개인 창작의 한문소설로 이어지는 장르사적 궤적으로 볼 때, <적성의전>은 조선조 후기 당대에 상당한 독자층을 확보했던 소설이고, 소설을 배격했던 사대부의 시야까지 포착된 문제성이 있는 소설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적성의전>의 작품 가치에 대해 밝혔다. 그리고 <적성의전>의 소설적 가치와 성취를 조선조 후기의 역사적·현실적 토대와의 연관 속에서 해명하고자 하였다. <선사태자입해품>과 <적성의전> 완판74장본 및 경판23장본을

13) 김현양, 「조선조 후기 ‘華夷觀’의 동향과 <적성의전>」, 『연세어문학』 25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대상으로 서사적 구도를 비교하여 <적성의전>의 화소 분석을 추출하고, 그를 토대로 성의와 항의, 그리고 보조인물들의 의미와 주제적 의미에 대해 밝혔다. <적성의전>의 서사적 갈등의 핵심은 왕위계승의 문제이며, 성의가 중국 황제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또한 안평국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성의에게 ‘효’와 ‘충’, 그리고 ‘우애’라는 유교적 자질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또 다른 주제적 의미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왕위는 유교적 자질을 온전히 구유한 자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조선조 후기 ‘화이관’의 이론인 ‘소중화론(小中華論)’의 새로운 동향을 반영한 것이며, <적성의전>의 소설적 가치는 화이관의 이상이 안평국이라고 하는 중국 주변의 소국의 인물인 성의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적성의전>은 유교 이념에 기초한 동아시아 지배질서의 수립을 소설의 핵심적 내용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지배질서 수립의 주체와 그 방식을 새롭게 문제 삼음으로 인하여 여타 소설과는 다른 독자적인 소설사적 의의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 하였다.

손미경¹⁴⁾은 <적성의전>의 서사체계를 출발, 시련, 복귀의 단계로 나누고 탐색 단계에 따른 공간의 이동과 의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안평국→서역→중국→서역→안평국’으로 공간이 이동하면서 탐색이 전개되는데 서역은 장애를 통해 성의의 탐색을 실현할 수 있게 하여 목적물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1차적 시련 공간이며,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의미의 변화가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보았고, 중국은 구원자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2차적 시련 공간이라 하였

14) 손미경, 앞의 논문.

다. 특히 그의 논의는 <적성의전>의 공간에 주목하여 주인공의 공간 이동에 따른 의미 도출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간과 작품의 내재적 의미 추출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적성의전>의 형제간의 갈등과 대립을 효와 우애의 이념으로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보인다.

김효실¹⁵⁾은 고소설에서 형제갈등을 다룬 연구가 가족 갈등 연구보다 관심을 적게 받았음을 지적하면서 여러 고소설 작품 중에서 신분, 편애, 쟁송, 부모의 득병, 선한형제 추방, 악한형제의 공격, 갈등 해결 등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성의전>과 <창선감의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성의를 형제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으며, 부모님의 마음만을 생각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는 <적성의전>의 주제의식에서 벗어난 해석이며, ‘형제간 갈등’을 분석하고자 했던 연구방법에 치우쳐 작품에 담겨 있는 내면을 왜곡시켰다. 또한, <적성의전>의 결말이 항의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창선감의록>과 달리 형제의 화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성의는 자신만을 위하는 주변 사람들에 둘러싸여 항의의 입장에서 생각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논의 역시 <적성의전>의 작품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여 형제간의 갈등 구조 속에 담긴 의미와 그를 통한 주제의식의 구현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적성의전>의 ‘형제간의 갈등’은 항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성의에게 가해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항의의 불측함이 증명되고, 이는 성의라는 뛰어난 인물과 대비되어 적장자임에도 왕위 계승에 적합하지 않은 인

15) 김효실, 앞의 논문.

물임을 보여준다. 특히 ‘형제간의 갈등’이 ‘형제간의 우애’의 강조가 아니라 는 점은 항의와 성의가 화해와 용서로써 결말이 맺어지는 것이 아닌 항의가 죽음으로 징치되는 점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즉 <적성의전>을 형제간의 갈등을 내세워 형제간 우애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이며, 결말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형 항의가 죽음으로 징치되는 것은 악덕을 비판하고 우애의 소중함을 강조하려 의도했던 것이라는 그의 분석은 작품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성을 보여준다.

신명래¹⁶⁾는 <적성의전>의 형성과정에 대한 그간의 논의가 대부분 불교설화에 치우쳐 있으나 작품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는 다른 측면으로 유교의 효와 선행에 대한 의리가 표면적 주제로 작품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으며, 그 바탕에 이상세계라는 도교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적성의전>은 형제간의 대립을 통해서 ‘우애’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두 인물의 성품의 현격한 차와 대립을 통해 효성과 결연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작품의 주제는 ‘영웅적 인물의 출중한 효성과 결연 및 선행에 대한 의리’라고 하였다. 또한, <적성의전>에서 그려진 형제간의 갈등은 단순한 자식 간의 다툼이 아니라 조선 시대 왕권을 둘러싼 적장자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대한 표현이며, 그 당시 정치 현실이 순탄하게 흐르지 못함의 반증이자 이러한 조선 시대의 제도에 대한 개혁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적장자가 아닌 차자의 왕위계승과 그 과정을 보면 분명 기존 사회에 대한 개혁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의를 두고 자신의 영웅적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회관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세자책봉의 현실에

16) 신명래, 「<적성의전>의 서사구조와 소설사적 위치」, 『한국어와 문학』 8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0.

서 벗어나 영예롭게 기존사회에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라는 평은 성의가 보여준 효를 지나치게 조선 시대의 정치 상황에 대입한 해석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적성의전>의 선행연구는 불교 근원설화와 관련된 연구, 구약 여정 혹은 탐색담의 구조 분석, 갈등구조나 인물 형상을 통한 의미 분석, 이본 비교와 주제의식을 분석하는 연구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까지 <적성의전>만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풍부한 편은 아니며, 특히 <적성의전>의 주제를 ‘효’와 ‘형제간의 우애’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연구가 많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의를 수용하되, <적성의전>의 공간과 서사 진행과정이 어떻게 ‘효’에 결집되어 주제화 되는지에 주목하겠다.

3. 연구방법

<적성의전>은 효성이 지극한 주인공 성의가 효를 실현하는 과정을 세 개의 공간을 통해 그려낸 작품이다. 효는 당대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던 유교적 덕목이었으며, 부모와 자식 혹은 가족과 나아가서 국가를 이루고 지탱하는 사상적 기반으로 받아들여지고 강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효라는 의식인 갖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며, 문학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수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II장에서는 본격적인 <적성의전>의 서사공간에 따른 효의 실현

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효가 우리 문학적 전통 속에서 어떤 모습과 정신으로 수용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의 범위는 소설인 <적성의전> 이전에 형성된 문헌설화나 서사무가에서부터 살펴 효 정신이 소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문학의 전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와 같이 설화부터 무속신화와 같은 소설 이전에 형성된 다른 층위의 작품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까닭은 효가 지닌 의미나 가치가 우리 문학 속에서 어떤 형상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알고자하며, 문학 속에 수용되어 있는 효의 보편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 대상으로는 대표적 문헌설화인 <삼국유사>를 통해 전승되고 있는 여러 효행 설화와 함께 무속신화인 <바리데기>, 자식의 희생을 통한 극진한 효성을 보여주는 <심청전>, 그리고 <적성의전>을 통해 효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어 전승됐는지 그 문학적 전통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적성의전>은 주인공 성의의 ‘효의 실현과정’을 세 번의 공간 이동을 통해서 구현해내고자 했음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주인공의 구약 여정이 드러나는 탐색의 공간인 ‘서천서역’과 안맹이 되었던 성의의 개안과 부마라는 새로운 지위와 자격을 획득하여 영웅의 면모를 보여준 ‘중국’, 그리고 탐색의 시작과 복귀가 이루어져 비로소 효의 완성을 실현하는 ‘안평국’이라는 각각의 공간은 <적성의전>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과 서사는 곧 주인공 성의의 ‘효의 실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성의전>에서는 공간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III장에서는 세 개의 공간과 공간의 이동에 무게를 두고, 각각의 공간에 담긴 주요 모티브에 주목하여 효가 실현되는 과정과 그에 담긴 의미를 논하도록 하

겠다. 특히 성의는 영웅의 형상에 가까운 인물로 효를 행하는 것이 곧 영웅의 면모와 영웅적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며, 성의에게 ‘효’는 곧 그 자체로 ‘영웅의 자격과 성취’로 작용하며, <적성의전>에서 ‘효’는 곧 ‘영웅성’을 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사공간에 따른 효의 실현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성의전>의 주제가 철저하게 효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형제간의 갈등’이 주인공 성의를 시련과 고난에 빠뜨리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의의 효행이 부각되고, 검증되며, 영웅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항의라는 갈등의 요인은 어디까지나 ‘효’라는 주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자 설정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앞선 II장과 III장을 토대로 <적성의전>이 갖는 작품적 특성이 당대 문학의 보편적 가치인 효를 성의를 통해 어떻게 실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적성의전>은 선행연구에서 밝혔듯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소설로 형성된 작품이다. <선사태자입해품>이나 <선우태자전>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서사단락의 구성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친연성을 보이거나 부처의 전생담이나 불교적 보시, 중생의 구제 등이 강조되었던 앞의 두 작품에 비해 <적성의전>은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어 불교적 정신이 많이 소거되고, 불교적 색채를 간직하게 되었다. 특히 부모의 병환을 치유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의 탐색이 이루어지며, ‘효의 실현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불교 설화와 소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육미당기>는 작가 서유영이 직접 밝혔듯이 상당 부분 <적성의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작품으로 이는 곧 <적성의전>의 소설사적 위치와 가치를 가늠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적성의전>과 효를 다룬 여러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효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의 보편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적성의전>은 방각본, 필사본, 구활자본 모두에서 다양한 이본이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이본 중에서 특히 서사가 풍부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행동 등 묘사가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공주와 기러기 군담화소가 잘 드러나는 완판 74장본을 대상으로 한다.

II. 효의 문학적 전통과 수용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 혹은 유교 국가라고 불릴 만큼 유교적 덕목이 국가 전반에 걸쳐서 강조되던 사회로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정신적 가치로 효가 중요시 되었다. 효 사상의 강조는 곧 효 정신의 실천과 함께 자식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가족은 물론 국가를 이루는 근간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효의 강조는 사회와 문화의 전반적인 사상적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문학에도 뿌리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효사상은 여러 문학작품에서 자주 거론되고 주제의식으로 다루어져왔다. 그 예로 우선 가장 대표적인 문헌설화로 손꼽히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효행설화를 들 수 있다. <<삼국유사>>는 현존하는 최고의 기록물로 국보 제306호로 지정된 만큼 그 가치와 의의 면에서 매우 독보적인 문헌자료이다. 특히 삼국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단군의 사적(史蹟)과 신화, 전설과 같은 설화 관련 기록이 매우 풍부하다. 또한 그 기록 속에는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사상과 정신이 깃들어 있기에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효행설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효에 대한 그 기본 속성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삼국유사>>는 총 5권 9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편명은 王曆, 紀異, 興法, 塔像, 義解, 神呪, 感通, 避隱, 孝善과 같다. 그중에서 孝善篇은 <<삼국유사>>의 가장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으며, 眞定師孝善雙美條, 大城孝二世父母條, 向得舍知條, 孫順埋兒條, 貧女養母條로 총 다섯 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眞定師孝善雙美>¹⁷⁾은 곤궁한 삶으로 인해 물질적인 봉양(奉養)에서는 어머니를 모시기에 부족하지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기쁘게 낮으로 대하며 마음의 편안함을 드리는 것으로 효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眞定>의 이야기는 불교적인 차원의 효로 확대되어 현세에서의 심신의 평안이나 물질적인 충족을 도모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보리심(菩提心)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드림으로써 진정한 효를 이루고 있다.¹⁸⁾ 그리고 진정한 효행은 출가를 통한 불교의 대효(大孝)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유난히 불교의 사찰연기설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효선편에 수록되어 있는 <大城孝二世父母>와 <孫順埋兒>, 그리고 <貧女養母>가 그러하다.

<大城>¹⁹⁾에서 보여주는 주된 효행은 어머니에 대한 봉양과 불교적 효행

17) 『三國遺事』 卷五 第九 孝善篇 「眞定師孝善雙美」條: 法師眞定 羅人也 白衣時 隸名卒伍 而家貧不娶 部役之餘 傭作受粟 以養孀母 家中計產 唯折脚一鎰而已 一日有僧到門 求化營寺鐵物 母以鎰施之 旣而定從外歸 母故之告 且虞子意何如爾 定喜現於色曰 施於佛事 何幸如之 雖無鎰又何患 乃以瓦盆爲釜 熟食而養之…중략… 定曰 萱堂晚景 唯我在側 弃而出家 豈敢忍乎 母曰 噫 爲我防出家 令我便墮泥黎也 雖生養以三牢七鼎 豈可爲孝 予其衣食於人之門 亦可守其天年 必欲孝我 莫作爾言 定沈思久之 母卽起罄倒囊儲 有米七升 卽日畢炊 且曰 恐汝因熟食經而營行慢也 宜在予目下 噉其一 囊其六 速行速行 定飲泣固辭曰 弃母出家 其亦人子所難忍也 況其杯漿數日之資 盡裹而行 天地其謂我何 三辭三勸之 定重違其志 進途宵征 三日達于太伯山 投湘公 剃染爲弟子 名曰眞定…중략… 講畢 其母現於夢曰 我已生天矣.

18) 황폐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155쪽.

19) 『三國遺事』 卷五 第九 孝善篇 「大城孝二世父母 神文王代」條: …생략… 因名大城 家窘不能生育 因役傭於貨殖福安家 其家俵田數畝 以備衣食之資 時有開士漸開 欲設六輪會於興輪寺 勸化至福安家 施布五十疋 開咒願曰 檀越好布施 天神常護持 施一得萬倍 安樂壽命長 大城聞之 跳跟而入 謂其母曰 予聽門僧誦倡 云施一得萬倍 念我定無宿善 今茲困匱矣 今又不施 來世益艱 施我傭田於法會 以圖後報何如 母曰 善 乃施田於開 未幾城物故 是日夜 國宰金文亮家 有天唱云 牟梁里大城兒 今託汝家 家人震驚 使檢牟梁里 城果亡 其日與唱同時 有娠生兒 左手蜚不發 七日乃開 有金簡子彫大城二字 又以名之 迎其母於第中 兼養之 旣壯 好遊獵 一日登吐含山 捕一熊 宿山下村 夢熊變爲鬼 訟曰 汝何殺我 我選啖汝 城怖懍請容赦 鬼曰 能爲我創佛寺乎 城誓之曰 喏 旣覺 汗流被蓐 自後禁原野 爲熊創長壽寺於其捕地 因而情有所感 悲願增篤 乃爲現生

의 실천인 보시(布施)가 중심이 된다. 특히 불국사와 석부사라는 두 사찰의 연기설화로서 효를 단순히 부모의 배를 부르게 하고 등을 따뜻하게 하는 양구(養口)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 귀의하여 사찰을 창건하여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뜻을 받드는 양지(養志)의 효를 적극적으로 견인해²⁰⁾ 낸 것이다.

<孫順>²¹⁾설화 역시 사찰연기설화 중 하나로 어떤 효성이 지나치게 극진하여 신명이 감응을 보였다는 효감(孝感) 설화 중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순 관련 이야기이다.²²⁾ 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희생시키는 이야기로 효성을 위해 부성 혹은 모성을 꺾으려 했다는 점에서 다른 효행설화와의 변별성을 지닌다. 손순의 효에는 비장함이 담겨 있다. 자식 된 도리로서의 효와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부성 본능이 공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존재-어머니, 다시 구할 수 없는 존재-와 상대적인 존재-자식, 다시 얻을 수 있는 존재-사이에서 절대를 선택할

二親 創佛國寺 爲前世爺孃創石佛寺 請神琳表訓二聖師 各住焉 茂張像設 且酬鞠養之勞 以一身孝二世父母 古亦罕聞 善施之驗 可不信乎 將彫石佛也 欲鍊一大石爲龕蓋 石忽三裂 憤恚而假寐 夜中天神來降 畢造而還 城方枕起 走跋南嶺 爇木 以供天神 故 名其地爲香嶺 其佛國寺雲梯石塔彫鏤石木之功 東部諸刹 未有加也 古鄉傳所載如上 而寺中有記云 景德王代 大相大城 以天寶十年辛卯 始創佛國寺 歷惠恭世 以大歷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 國家乃畢成之 初請瑜伽大德降魔住此寺 繼之至于今 與古傳不同 未詳孰是…생략…

20) 최정선, 「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인 여성상」, 『불교학연구』 제10호, 2005, 154쪽.

21) 『三國遺事』 卷五 第九 孝善篇 「孫順埋兒 興德王代」條: …생략…順有小兒 每奪孃食 順難之 謂其妻曰 兒可得 母難再求 而奪其食 母飢何甚 且埋此兒 以圖母腹之盈 乃負兒歸醉山 山在牟梁西北 北郊 掘地忽得石鐘甚奇 夫婦驚怪 乍懸林木上 試擊之 春容可愛 妻曰 得異物 殆兒之福 不可埋也 夫亦以爲然 乃負兒與鐘而還家 懸鐘於梁扣之 聲聞于闕 興德王聞之 謂左右曰 西郊有異鐘聲 清遠下類 速檢之 王人來檢其家 具事奏王 王曰 昔郭巨瘞子 天賜金釜 今孫順埋兒 地湧石鐘 前孝後孝 覆載同鑑 乃賜屋一區 歲給粳五十碩 以尚純孝焉 順捨舊居爲寺 號弘孝寺 安置石鐘 眞聖王代 百濟橫賊入其里 鐘亡寺存 其得鎮之地 名完乎坪 今訛云枝良坪.

22)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제2책,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306쪽.

수밖에 없는 손순의 결단²³⁾이 바로 그 효행에 비장함을 더한 것이다. <孫順>의 비장한 효행은 신비한 돌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곧 홍효사라는 절의 사찰연기설화로 이어졌다.

<貧女養母>²⁴⁾는 효의 실천과 마음가짐에 대한 언급을 통해 효도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말하고자 하였다. 진정한 효의 실천이란 물질적 봉양보다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심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특히 빈녀인 지은이 살던 집을 희사하여 사찰로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貧女> 역시 사찰연기설화이다.

이처럼 <大城孝二世父母>와 <孫順埋兒>, 그리고 <貧女養母>의 세 편의 효행설화는 불교적 사찰연기설화로 주인공의 행적이 단순히 지극한 효행을 치사하기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교적 정신을 강조하고 기리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불교적 효의 세계와 깨달음이 강조되고 있어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向得舍知>²⁵⁾는 향득이란 사람이 굶어 죽게 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다릿살을 베어 봉양했으며, 그의 효행을 전해들은 왕이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이다. <向得>의 신체훼손을 통한 부모 봉양은 불교적 입장에

23) 강진욱, 「삼국유사 <효선편>설화연구1 - ‘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학』 93, 1985, 143쪽.

24) 『三國遺事』 卷五 第九 孝善篇 「貧女養母」條: 孝宗郎遊南山鮑石亭 或云三花述 門客星馳有二客獨後 郎問其故 曰 芬皇寺之東里有女 年二十左右 抱盲母相號而哭 問同里 曰 此女家貧 乞啜而反哺有年矣 適歲荒 倚門難以藉手 贖賃他家 得穀三十石 寄置大家服役 日暮囊米而來家 炊餉伴宿 晨則歸役大家 如是者數日矣 母曰 昔日之糠粃 心和且平 近日之香秬 膈肝若刺 而心未安 何哉 女言其實 母痛哭 女嘆己之但能口腹之養 而失於色難也 故 相持而泣 見此而遲留爾 郎聞之潛[漣]然. 送穀一百斛 郎之二親 亦送衣袴一襲 郎之千徒 斂租一千石遺之 事達震聰 時眞聖王 賜穀五百石 并宅一廬 遣卒徒衛其家 以儆劫掠 旌其坊爲孝養之里 後捨其家爲寺 名兩尊寺.

25) 『三國遺事』 卷五 第九 孝善篇 「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條: 能[熊]川州有向得舍知者 年凶 其父幾於餓死 向得割股以給養 州人具事奏聞 景德王賞賜租五百石.

서 볼 때,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할고행위는 내가 지금 보시하는 대상은 전세에서 자신의 살을 베어 나를 살렸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내세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 줄 사람일 수도 있다는 불교적인 윤회 환생관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현세에 존재하는 자신의 실존자체가 부모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내세를 위해 혹은 전세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향한 진정한 효²⁶⁾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삼국유사>>효선편에 실린 효행설화는 모두 부모를 위해 자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자식의 지극한 효성을 통해 효의 의미와 그 가치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특히 다섯 편의 이야기 모두 지극한 효행 끝에 불교적인 깨달음이나 불교에의 귀의 혹은 사찰을 세우는 등 모두 불교적인 세계관이 강조되어 효행을 통한 불교적 정신을 내세웠다. 따라서 <<삼국유사>>에서 보여준 지극한 효성에 대한 효행담은 효를 내세운 불교적 정신과 관념의 강조를 위한 것이었으며, ‘효’라는 정신과 가치는 불교라는 종교적 세계 속에서도 유효한 가치였음을 알 수 있다.

효행에 관련된 이야기는 문헌설화 외에도 무속신화인 <바리데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바리데기>는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딸이 병에 걸린 부모를 살리기 위해 서천서역으로 구약여행을 떠났다가 시련 끝에 약수를 얻어 온다는 이야기로 주인공의 진심 어린 효행담이 잘 드러난다. 딸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나 언니들조차 꺼리는 험난한 구약여행을 떠나 위기와 고난의 과정을 거쳐 여러 과업을 수행하고 부모님을 살릴

26) 최정선, 앞의 논문, 158쪽.

치료제를 얻어 귀환의 과정을 밟고, 마침내 부모를 살려낸다는 점에서 지극한 효행담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지극한 효성을 지닌 존재가 일종의 자기희생의 효를 실천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무조신(巫祖神)’으로 좌정하는 것은 ‘지극한 효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인공의 신격화를 통해 효의 가치를 더욱 높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의 의미와 가치를 논할 때, 그 논의의 중심에서 자주 거론되는 작품으로 <심청전>을 들 수 있다. 주인공 심청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서 공양미 삼백석에 인당수 제물로 팔려가는 효행을 통해서 ‘자기희생의 효’를 보여주었다. 부모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는 모습은 심청이 보여준 효행의 가치와 의미에 비극성을 더하여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적성의전>의 주인공 성의 역시 모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천서역으로 일영주 획득을 위한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것으로 ‘자기희생의 효’를 보여주었다. 특히 친형인 항의의 방해로 일영주를 획득하고도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두 눈을 잃고 타국에서 암흑과도 같은 고난을 겪게 된다. 성의가 보여준 ‘자기희생의 효’는 일영주라는 탐색 목적물의 획득에 성공하고도 복귀의 실패를 겪어 오히려 그의 효행의 고난만큼이나 더 높은 차원의 효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효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향유층 및 전승과정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지만, 그 논의 범위는 문헌설화와인 <<삼국유사>>와 서사무가인 <바리데기>, 그리고 <심청전>을 거쳐 <적성의전>에 이르기까지로 한정하여 설화에서부터 강조되어왔던 ‘효’ 정신이 소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문학의 전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헌설화부터 무속신화와 같은 소설 이전에 형성된 다른 층위의 작품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까닭은 효가 지닌 의미나 가치가 우리 문학 속에서 어떤 형상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알고자하며, 문학 속에 수용되어 있는 효의 보편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작품들은 효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문헌설화나 무속신화, 그리고 소설처럼 서로 다른 층위의 작품임에도 그 중심을 관통하는 효의 정신이나 의미는 일치하고 있다. 특히 ‘자기희생을 통한 효’ 혹은 ‘고난에 따른 효의 완성’과 같은 공통의 효의 보편적 모습과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여러 층위의 작품 속에 반영된 효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의 ‘효’라고 하겠다.

이밖에도 효의 가치는 더욱 다양한 작품과 오랜 시대에 걸쳐 꾸준히 수용되어 온다는 점에서 더욱 그 빛을 바란다. 따라서 우리 문학에 나타난 ‘효’는 인간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 문학에서 한 줄기의 큰 문학적 전통으로 자리 잡아 끊임없이 수용되어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적성의전>의 서사에서 펼쳐지는 주인공 성의의 ‘효의 실현’ 과정은 작품이 향유되던 시기의 독자들의 의식세계와 궤를 같이 했을 것이며, 효를 중요시하고, 강조하던 사회에서 주인공 성의의 지극한 효행은 깨달음과 감동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 역시 효의 문학적 전통과 수용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기에 그 가치와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Ⅲ. <적성의전>의 서사공간에 따른 효의 실현과정

소설을 구성하는 3대 요소로는 인물·사건·배경이 있다. 특히 배경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공간은 작품 속 인물들이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무대인 동시에 인물과 사건이 진행되고 구현되는데 매우 긴밀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즉 소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서사구조 혹은 서사공간을 통한 분석이 중요시 되는 것이다. 특히 소설에서 서사공간은 서사 내용과의 상관성을 통해 특정 주제를 강조하거나 독자들에게 일정한 감동을 창출하고 전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²⁷⁾ 그렇기 때문에 ‘효’라는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적성의전』 역시 서사공간을 통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적성의전>은 서천서역, 중국, 안평국이라는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서천서역이라는 공간은 천상계라 할 수 있으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영주를 획득하는 곳이자, 천불대사(千佛大師)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지상 세계인 중국이나 안평국과는 이원화된 천상의 공간이다. 그러나 중국과 안평국은 같은 지상세계의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은 다시 이원화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안평국’은 ‘국외:국내’의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천상계:지상계’로 다시 환치시켜 볼 수 있다. ‘중국’이라는 공간은 폐망이 된 성의가 호승상의 도움으로 건너가게 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성

27) 심치열, 「『부용의 상사곡』에 나타난 평양의 문화적 현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제 30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105쪽.

의는 뛰어난 단저 솜씨로 공주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부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일종의 이변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중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곳이며, 지상의 세계임은 분명하지만 그 공간 안의 속성은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천상계 혹은 비현실적인 세계와 다르지 않다. ‘안평국’은 주인공이 모든 탐색과 고난의 과정을 끝내고 돌아오는 복귀의 공간으로 지상계이자 현실적인 공간이다. 이처럼 <적성의전>에 구현되어 있는 공간은 보편적으로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공간의 이원화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지만 기존의 서사적인 공간의 의미나 형식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즉 <적성의전>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형식은 보편적 고전소설의 서사공간의 공식을 따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작품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효의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현실감과 사실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서사공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의전>의 세 개의 서사공간과 그 안에서 효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세 곳의 공간과 그에 동반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적성의전>의 주제 의식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의 효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서사공간의 진행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자.

1. 효의 동기와 탐색담

안평국 왕자인 성의는 본래 효심이 깊은 인물로 태어났으나 그의 효심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발현되는 동기는 모후의 득병에 의해서다. 그리고 그 효의 실현 동기는 곧 일영주 획득을 위한 탐색담으로 이어지며, 이때 본국인 안평국에서 일영주 획득을 위한 서천서역으로 공간의 이동과 확대가 이루어진다. 특히 성의의 탐색담의 서사는 서사무가인 <바리데기>의 탐색담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효의 주체와 자격의 획득

『적성의전』의 주인공 적성의는 외모와 재주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질며 효행이 지극한 인물로 심술이 불측(不測)하고 어질지 못하여 늘 동생을 시기하여 해칠 뜻을 품는 형 향의와 비교된다.

국왕이 왕비로 동주 이십 여언의 두 아들 두어시이 장자의 명은 향의이 언이 십스 세라, 츠즈의 일홈은 성의이 나히 십이 세라. 성의는 얼굴이 관옥갓고 풍치 슈려호여 세상 사람 갖지 안트라. 장자 향의는 심술이 불측호고 쓰거 어지지 못호여 미양 그 동성을 시기호여 죽이고즈 호되, 츠자 성의는 지조 민첩호고 마음이 어지러 호행이 지극호여 왕이 미양 일커러 왈, “성의는 비금 가운데 난 봉이요 주슈 가운데는 기리이라.” 차시의 향의 본심이 불양한 중의 그 부모 성의 사랑호물 보고 미양 시기하여 심중의 회할 쓰슬 품고 지너더라.²⁸⁾

28) 이현홍 역주, 『조웅전;적성의전』, 『한국고전문학전집』 23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

항의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성의의 바람직한 성품을 본받거나 배우기보다는 적장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데 급급해 한다. 왕위를 잇기 위해서는 동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불사할 마음을 품은 그에게서 형제간의 우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선군이 될 만한 재목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반된 성격과 인품을 지닌 두 형제는 항의라는 악인과 성의라는 선인의 모습을 통해 상대적으로 성의의 뛰어난 능력이나 인품, 효성 등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두 아들을 대하는 왕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앞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두 형제를 두고 왕이 말하기를 “성의는 비금 가온디난 봉이요 쥬슈 가온디는 기리이다.”라고 비유할 정도로 성의는 성품과 인격 면에서 가히 치켜세워줄 법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성의의 타고난 성품으로 볼 때, 그가 부모를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효도할 인물임은 짐작할 수 있다.

(ㄱ) 당연 모춘의 왕비 우연 득병하야 병세 점점 침중하미 궁중이 소동호고 조정이 근심되야 명의 양약으로 다사리되 반점 차효 업서 병세날노 더한지라. 잇디 왕이 크게 근심하스 정사를 폐하시고 방곡의 호조호사 명의를 구지하시더라. 차시의 성의 모후 침소를 썬나지 안이하고 주야로 약을 맛보와 권하며 효성으로 서위호야 하날게 축수 왈, “천지일월성신은 감응호옵소서. 모비의 병세 가진 지 천명일진디, 불초자 성의로 디명호옵시고, 모후의 명을 이어 살여주옵소서.” 하며 축수하기를 마지 아니 하더니, 천지 엇지 무심호리요.(300쪽)

소, 1996, 298~300쪽. (앞으로 작품 인용 시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이하 <적성의전>)

(ㄴ) 왕비우연득병하여점 〃 침중하여십분위티하미일국이황 〃 하나맛참니빅약이무
 효훈지라왕이초조하여각읍의전지하여명의를구하되무가니하라항의는돈언불
 고하고성의는쥬야로불탈의디하고시탕하며하날기축슈하여왈불초자성의로디
 명하고모휘의병을낫게하여쥬쇼셔하고축원하더니²⁹⁾

위에 제시된 두 인용문 (ㄱ)은 <완판74장본>이며, (ㄴ)은 세책필사본인 <동양문고본>으로 같은 부분의 대목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ㄱ)에서는 성의가 지극정성으로 모후를 간병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나 항의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ㄴ)에서는 성의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후의 곁에서 간병을 하며,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과는 반대로 항의는 ‘돈언불고(頓然不顧)’하여 모후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 모후의 득병에 대처하는 두 형제의 대비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성의는 왕비의 갑작스러운 득병에 밤낮으로 침소를 지키며 효성을 다해 모후를 모신다. 그의 효성의 진정성은 천지일월성신에게 축수를 다하는 장면에서도 확인된다. 반면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정성껏 모셔야 하는 장자 항의는 왕비의 병환에도 전혀 돌아보지 않으며, 효자 성의와 비교되는 행동을 보인다. 부모의 병환을 돌보지 않는 항의의 행동은 유교 윤리로 볼 때, 불효에 해당하는 행위이기에 적장자로서 매우 그릇된 행태라 할 수 있다. 『孝經』에 따르면 부모를 섬기는 다섯 가지 방법³⁰⁾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아버지가 병환이 있을 때는 근심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하였

29) 동양문고본 <적성의전>, 2쪽.(이윤석 외, 「금방울전·김원전·적성의전·만언사」, 『연세국학총서』 34, 경인문화사, 2006.)

30) 『孝經』, 「紀孝行章」: 子曰 孝子之事親也 居則室其敬 養則室其樂 病則室其憂 喪則室其哀 祭則室其嚴. 五者備矣 然後能事親.

다. 즉 향의는 적장자의 왕위계승이라는 유교 질서 안에 살고 있고,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전전긍긍 하면서도 정작 적장자로서의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성의와 향의의 상반되는 성품의 근본적인 원인은 왕이나 왕비의 차별적인 대우나 편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물론 왕과 왕비가 성품이 어질고 인물이 바르며, 재주도 뛰어난데다가 효행까지 지극한 성의를 더욱 아끼는 것을 보고 향의가 늘 시기하고 마음속으로 해칠 뜻을 품고 지낸 것은 분명하다.³¹⁾ 그러나 왕과 왕비가 성의를 더욱 아끼는 점이나 향의가 불측한 심성으로 성의를 해칠 뜻을 품고 있는 것의 근본적인 시작은 두 형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어진 운명에서 비롯된다.

“이 약이 일영주니 밋비 도라가 모환을 구하라. 너는 본디 호계 사람이 아니라. 전세의 묘일성신과 혐의 잇더니 금세의 형제되미 허다 곤익이 잇스나 필경의 원한을 풀 나리 잇스리라.”(306쪽)

제시된 인용문은 성의가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 서천서역에 갔다가 천생금불보탑존자(天生金佛寶塔尊者)를 만나 자신의 전생에 대해 듣게 된 대목이다. 본래 천상계의 인물이었던 성의와 묘일성신이었던 향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 둘이 현세에 형제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일종의 전생의 업이 내세로 이어져 현세의 형제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의전>의 갈등은 성의와 향의 사이로 제한되어 나타난다. 본래 향의의 성품이나 불측한 심성대로라면 자신이 적장인데도 불구하고 차자인 성

31) 차시의 향의 본심이 불양한 중의 그 부모 성의 사랑호물 보고 미양 시기하여 심중의 허할 쓰슬 품고 지너더라. (300쪽)

의를 더욱 애중히 여기는 왕과 왕비를 향한 분노나 갈등이 드러날 법도 하다. 그러나 항의의 악인으로서의 분노나 갈등은 오로지 성의에게로만 향한다. 이와 같은 인물 설정을 근거로 볼 때, 성의와 항의 두 형제의 극명한 인물 설정의 대립은 전생의 인연과 그로부터 이어진 현세의 운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행에 있어서의 성의와 항의가 차이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두 형제의 전생의 인연과 현세에서의 운명은 이미 천상의 질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나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즉 앞서 밝힌 것과 같은 성의와 항의의 성품과 효행에 있어서의 상반된 모습은 안평국이라는 공간과 긴밀한 영향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천성에 가까운 것이며, 전생의 인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도인이 드러와 그 실컷슬 잡고 이윽히 집먹한 후의 물너나와 왕게 고왈, “니 궁 환우을 집장흐온즉 병이 복중의 미쳐스니 안정이 히미할지라 병세 만분 위 텨호오니 빈도 아난 바 만일 릴영주를 구하지 못호오면 왕비의 귀한 명을 구할 기리 업난이다.” 하거늘, 왕이 문왈, “그러하면 일영난 어디 잇난 약인잇고?” 도사 드왈, “서천 서역국 청용사의 잇사오나 적성의가 안이면 엇지 못호오리다.”(300쪽)

앞서 살펴본 인용문에서는 성의와 항의의 천상적 운명에 의한 성품과 효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면 본 인용문에서는 서천서역에서 일영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의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성의가 일영주를 구하러 서천서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항의의 질투나 시기심에 의한 갈등이나 방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적성의전>의 지향하고 있는 주제의식이 형제간의 갈등이 아닌 주인공 성의의 효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는 형제간의 갈등 역시 성의를 향한 항의의 일방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며, 성의의 관심은 오로지 부모님을 향한 효에 집중되어 있다. <적성의전>은 형제간의 갈등이 중심이 아니라 애초부터 효자 성의를 통해서 효의 실현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적성의전>의 결말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결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 효의 발현과 공간의 확대

성의의 효심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발현되는 동기는 모후의 득병에서부터이다. 모후의 병상을 밤낮으로 지키며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분명 효성 지극한 효자이다. 그러나 성의의 효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일영주 획득’을 위한 서천서역으로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계기로 ‘효의 발현’의 계기를 맞게 된다.

“소자 비록 연소하오나 서천의 가서 일영주를 어더 올라 하는이다.” 왕 왈,
“네 효성이 지극하나 서천은 하늘가이다. 만경창과의 선척을 타고 지형을 엇지아라 득달하며, 또 약수 삼천리가 잇스니 나는 식 김심의 짓도 가라안는다 하거늘 웃지 약수를 건네리요. 가장 오활한 말을 말나.” 하시고 니전의 드러가

도사의 하던 말을 전한디 왕비 디왈, “허탄한 도사의 말을 듣고 지원한 서역을 엇지 가리요. 인명이 지천하니 과도이 근심치 말나. 일영주 엇지 사람을 살이 리요. 아히는 망영된 의사를 두지 말나.” 하시니 성의 엇자오디 “옛적의 티향 산 운림쳐사는 일광노의 명을 바다 향산의 가 약을 어더 한헌제의 장평공주의 명을 구하여스니 도사의 마리 비록 허망헌다 호오나 소자 이제 신통을 어더스 오니 결단코 가서 약을 어더다가 모후의 환후을 구하옵고 소즈의 불효를 만분 지 일이나 면할가 하나니다.” 왕비 옥수로 성의를 어로만지며 왈, “석일 진시 황의 위엄으로도 서역을 건네들 못호엿거늘 네 이제 가려하니 효성이 지극한지 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요행으로 약을 어더온들 니 엇지 차도를 바리리요. 너 을 보니고 병중의 심여되리로다.” 하시니 성의 지비 왈, “모후난 과도이 시러 마르소서. 소자 왕환이 오리지 아니 하린이 기간 보중하소서.”(304쪽)

성의는 일영주가 모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약이라는 도사의 말을 듣고는 왕과 왕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고 단호한 의지로 서천서역으로의 여정을 주저하지 않는다. 성의의 확고함 속에는 오로지 모후의 병환을 낮게 하겠다는 의지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왕과 왕후의 사랑을 받아 적장자를 뛰어 넘어 왕위계승을 해야겠다는 고민이나 욕망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성의는 철저하게 ‘효’로 표상되는 인물인 것이다. 즉 효의 실현을 위한, 효의 발현의 계기는 모후의 득병이며, 성의의 일영주 획득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를 통해 비로소 서천서역으로 공간의 이동과 확대가 이루어진다. 또한 성의가 일영주를 획득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은 일종의 구약(救藥)을 위한 탐색담(探索談)이라 볼 수 있다.

오든(W. H. Auden)은 <탐색영웅(The Quest Hero)>에서 “탐색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대중적인 문학 형태 중의 하나이다.”라고 밝

힌바 있으며, “잃어버린 옷단추를 찾는 일은 참된 의미의 탐색이 못된다. 탐색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찾음을 뜻한다.”고 하였다.³²⁾ 또한 탐색의 전형적인 예로 그림(Grimm)의 「생명수」를 통해 탐색의 여섯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① 귀중한 물건이나 인물: 찾아내어 소유하거나 결혼하게 된다.
- ② 여행: 이들의 행방이 탐색자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한 기나긴 여행을 한다.
- ③ 영웅: 귀중한 사물은 아무나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품행과 성품을 갖춘 자만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 ④ 시련: 하찮은 것이 가려지고, 영웅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 또는 일련의 시련을 겪는다.
- ⑤ 파수꾼: 물건을 손에 넣기 전에 물리쳐야 할 그 물건의 파수꾼들, 그들은 다만 영웅의 능력(arete)을 시험하기 위한 가일층의 시련일 수도 있고, 혹은 그들 자체가 악의적일 수도 있다.
- ⑥ 원조자들: 지식과 초자연적인 힘으로 영웅을 돕는 원조자들³³⁾

오든이 제시한 탐색담의 필수 요소는 영웅이 탐색물을 찾하고자 여행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시련을 겪지만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겨내고 결국엔 탐색물을 획득하고 귀환한다는 것이다. 이 여섯

32) 조희웅, 『설화학강요』, 새문사, 1989. 119쪽.

33) W. H. Auden, “The Quest Hero,” *Texas Quartely*(1961). S. N. Grebstein, ed., *Prerspectives in Contemporary Criticism* (New Yo가 : Harper & Row Publishers, 1968), p.372; 조희웅, 앞의 책, 120~121쪽, 재인용.

가지 요소는 <적성의전>의 서사에서 발견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의가 일영주를 획득하기 위해 떠나는 구약을 위한 탐색의 과정이 펼쳐지는 서천서역의 공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오든의 탐색담의 여섯 가지 필수적인 요소와의 비교를 통해서 <적성의전>의 서천서역의 공간과 탐색담의 의미와 특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³⁴⁾

우선 탐색담의 여섯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적성의전>에 비추어 탐색담으로서의 요소를 작품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추출해보고, 성의의 효심이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탐색을 떠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탐색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서천서역의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성의가 모후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일영주를 찾으러 떠나는 것은 ①번 항목인 귀중한 물건이나 인물을 찾아내어 소유하거나 결혼하게 되는 것에 해당된다. 물론 항의에게 빼앗겨서 직접 모후에게 일영주를 전해주지는 못하지만 귀중한 물건을 직접 찾아낸 것은 성의이기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의가 중국 공주와 혼인을 맺어 부마의 자리에 오르고,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왕위까지 계승하는 결말은 일영주 획득을 위한 여정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①귀중한 물건이나 인물을 찾아내어 소유하거나 결혼하게 된다는 탐색담의 필수 요소로서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

34) <적성의전>을 오든의 탐색담의 필수 요소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연구사 검토에서도 밝혔듯 양한석의 연구가 있다. 오든이 추출한 탐색의 6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한국 서사문학 중에서도 고전소설에 적용시켜 탐색의 개념과 실상을 끌어내고자 했으며, 이처럼 새로운 연구방법의 적용은 <적성의전> 연구에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탐색담의 구조 속에 펼쳐진 인물이나 사건, 탐색의 과정 등이 공간의 이동과 변화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제의식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의 새로운 연구방법을 빌려 재적용하여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로 발전시키고자 오든의 탐색의 6가지 필수요소를 <적성의전>의 분석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키고 있다.

성의는 도사로부터 모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일영주이며, 서천 서역이라는 곳에 있다는 말에 일영주 획득을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ㄱ) 성의 사공다려 문왈, “에서 서역이 얼마나 нама스리오?” 사공이 디왈, “이 썩은 서히오니 수철이만 가오면 염조섬이 잇삼고 그 섬의셔 수철이를 가면 영보산이 보이나다.” 성의 탄왈, “망망창희의 동셔을 분별흐나 언제 나 득달흐리오?” 스공 왈, “이곳은 소상강이라 스면의 산이 업건이와, 약수는 하늘가이오니 일 년을 간들 엇지 가오릿가? 헤아리건디 양잔을 보오면 서천을 바리보오리다.” 직시 흥션흐여 혼 곳에 다다르니 홀연 풍낭이 이러나며 우레갓흔 소리 나며 바다회 뒤늦는듯흐거날 주중지인이 정신을 수십지 못흐야 엇지 할 줄 모로던이 일흠 모로는 짐성이 희중으로 조츠오며 입으로 물을 토흐니 파두 흥흥흐며 비을 요동흐니 선인들이 혼비빅산흐여 황황흐거늘 성의 양턴 축수 왈, “소즈는 안평국 왕즈 적성의이려니 모친의 환후 위중하와 서천에 드러가 일영주를 구흐려 호오니 복원 천지 신명과 서히 용왕은 소즈의 절박흐 스정을 살피스 서역에 득달흐와 약을 어더 가게 호소서.” 그 짐성이 문득 간 디 업고, 물결이 고요흐며 천지 명낭흐던이(308쪽)

(ㄴ) 티황산 늙흔 봉은 하늘에 다향고 약수 앳흔 물은 날짐싱 짓설 잠구논또다. 망영된 저 아희는 일영주를 네가 타고 어디로 향할고?(308쪽)

(ㄷ) “나는 봉니 방장, 영주를 다 구경흐엇시되 서천을 보지 못흐여거던 너 갓탄 어린 아히 속깊이 엇지 약수를 건네리요. 밧비 도라가 네으 부모 얼굴이나 다시 보미 오를가 호노라.”(310쪽)

위에서 제시한 세 개의 인용문을 보면 서천서역이란 공간은 새의 깃도 가
 라앉는 약수 삼천리와 험한 풍랑과 바다 속 이름 모를 짐승의 방해와 위협,
 그리고 선관에게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 공간으로 감히 인간의 신분으로는
 출입조차 불가능한 곳이다. 물론 도사에게 일영주가 서천서역에 있다는 정
 보를 얻은 상태이지만 서천서역이라는 공간 자체가 인간은 물론이고 선관
 에게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곳이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야말
 로 ‘미지의 세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탐색자인 성의는 일영주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즉 귀중한 물건이나 인물의 행방이 탐색자에게
 는 알려져 있지 않기에 그것을 찾기 위해 기나긴 여행을 떠난다는 ②번 항
 목을 충족시킨다.

성의의 어진 마음과 지극한 효행은 천지를 감동시켰으며, 일영주를 구하
 러 갈 수 있는 자격과 함께 일영주 획득의 기회를 부여 받는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측하고 어질지 못하며,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는 품
 는 향의는 애초부터 일영주 획득을 위한 탐색의 자격부터 부여받지 못한다.

(ㄱ) “니궁 환우을 집장호온즉 병이 복중의 띠쳐스니 안정이 히미할지라 병세
 만분 위터호오니 빈도 아난 바 만일 일영주를 구하지 못호오면 왕비의
 귀한 명을 구할 기리 업난이다.” 하거늘, 왕이 문왈, “그러하면 일영난 어
 디 잇난 약인잇고?” 도사 디왈, “서천 서역국 청용사의 잇사오나 적성의
 가 안이면 엇지 못호오리다.”(302쪽)

(ㄴ) “이 곳을 한 번 보면 삼지팔난열 소멸호느니 귀직의 효성이 창천의 사뭇
 차는지라. 작일의 존자 분부하시되, ‘명일 유시의 안평국 왕자 니게 올 거
 시니 오던 즉시에 알외라’ 하시더니, 생각건더 그터를 이르미시라.”호고,

“잠간 미무쇼셔.” …중략… 성의 칠보더 아리의셔 지비한디 존자 왈, “니 일즉 수도호여 천하계국 중성의 선악을 보난지라. 이제 네 호도호여 위친 지성이 지극호여 극낙 서역이 창히 누말이여날 부모의게 호드호미 위친지 성으로 질을 삼마 금일노 올 줄을 알아던이 과연 오도다.”(316쪽)

뛰어난 외모와 민첩한 재주와 어진 마음, 그리고 효행이 지극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성의는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영웅의 형상에 가까운 존재다. 무엇보다도 천지를 감동시켜 일영주 획득을 위한 탐색의 자격을 부여받고, 서천서역의 천생금불보탑존자(天生金佛寶塔尊者)에게도 그 진실한 효행을 인정받아 마침내 모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영주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성의의 지극한 효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가 지닌 효는 그 자체로 영웅의 자격과 영웅의 성취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적성의전>에서 ‘효’는 곧 ‘영웅성’을 뜻한다. 바로 이것이 <적성의전>에 적용되는 새로운 의미의 ‘영웅성’이다.

성의는 효를 추구하고, 효를 따르며, 효에 대한 믿음과 실천으로 이루어진 인물로 철저하게 효를 행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성의라는 인물은 일반적인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대부분 ‘군담’을 통해 그 영웅성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 ‘효’를 행하는 것을 통해 ‘영웅성’의 획득하며 ‘효행’을 통해 ‘영웅’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적성의전>의 ‘영웅성’은 곧 ‘효’로 대치되며, 성의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았던 뛰어난 외모와 민첩한 재주, 어진 마음과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의 형상화는 영웅의 형상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를 근거로 <적성의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웅’은 지극한 효성을 지니고, 그 효를 실천하고 따르는 성의로 구현되며, 그가 지닌 효

성은 곧 ‘영웅성’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의전>은 ‘효’를 행하는 영웅의 서사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적성의전>은 성의라는 인물을 통해 오든이 밝힌 탐색담의 여섯 가지 요소 중 ③번 항목인 ‘영웅’의 서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성의전>의 주인공 성의는 탐색의 과정에서 시련을 겪는데 일영주를 획득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천서역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바다짐승의 위협이나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겪는 좌절, 혹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약수 앞에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길 원하는 선관들의 외면 등 일영주를 획득하기 이전에 겪는 시련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영주 획득 전의 시련은 성의의 정성어린 축수와 선관의 도움으로 극복하게 된다.

(ㄱ) 성의 양턴 축수 왈, “소즈는 안평국 왕즈 적성의이러니 모친의 환후 위중하와 서천에 드러가 일영주를 구하려 호오니 복원 천지신명과 서히 용왕은 소즈의 절박한 스정을 살피스 서역에 득달호와 약을 어더 가게 호소서.”(308쪽)

(ㄴ) 양천 탄왈, “불효자 성의 모후 병세 침중호를 위하여 서역으로 일영주를 구하려 가오니 천지신명은 감동호사 일영주를 엇게 호옵소서.”(308쪽)

(ㄷ) 성의 다시 지비 왈, “소자 모친을 위하여 죽기가 원이옵건이와, 희중 표류일의 종시 서천을 보지 못호고 죽사오면 무삼 면목으로 지하의 도라간들 부모을 뵈오릿가?바리건디 복원 선관은 호히지은을 베푸사 약을 어더 도라가게 하소서.”(310쪽)

(ㄱ) 인용문은 성의가 서천서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바다짐승의 위협을 받아 배가 난파의 위기에 처하자 하늘을 우러러 비는 장면이다. 성의의 기도는 곧 바다짐승의 횡포를 잠재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인용문 (ㄴ)은 서천서역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던 성의가 지나가는 선관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끝내 외면을 받자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다. 두 인용문의 시련은 성의의 효성이 얼마나 진실한지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자 검증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인간세계의 밖에서 겪는 난관은 아무리 효성이 지극한 성의라도 쉽게 이겨내기 어려운 시련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시련 앞에서도 일영주를 향한 성의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 인용문 (ㄷ)을 보면, 성의의 진심 어린 기도는 또 다른 선관과의 만남으로 이어주는데 이때 다시 한 번 효심에 대한 검증의 단계를 거치고, 비로소 한 선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네의 정성이 지극히도다. 나히 몇 살니요?” 성의 디왈, “십이 세로소이다.” 선관이 소왈, “먼저 가던 선관을 보왔난야?” 성의 디왈, “여러 선관 지나가시되 본 체도 아니 하더니다.”하며 왈, “이제야 어진 선관을 보왔는이다. 소자의 소원을 리우게 하여 주옵소서.”하니 선관이 왈, “연소 척동이 자모을 위하여 누말이 험노의 천신만고하여 왔시니 네 효성을 족히 하늘리 감동하실지라. 너 엇지 구치 아니 하리오. 다만 속국은 약수를 건네지 못흐논이 선인 등과 비을 이 수변의 머무르고 너만 파초션으 오르라.”하거늘 성의 즉시 수변의 비을 띠고 사공을 천만 당부하고 선관을 쓰라갈시, 선관이 부작을 쥘며 왈, “이 부작을 몸의 진이면 허중 귀신이 범치 못흐논리라.”하고 거문고을 타며 표연이 가거늘 성의 심분환히하여 가더니, 순식간의 한 곳의 다다르니 이 고승 서천이

라.(310~312쪽)

일영주를 획득하기 이전의 시련은 성의의 축수와 선관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영주를 획득한 후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향의는 왕과 왕후의 사랑을 받는 동생 성의가 일영주까지 구해와 모후의 병을 치료하면 자신의 위치가 위협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성의를 모함하고 해치려 한다.

차시의 향의 불양한 마음이 비속의 드러 놀노 크는지라. 너심의 헤오디, ‘모 훗게서 성의를 본디 사랑호시거늘 만일 약을 어더다가 환우을 평복한즉 더욱 사랑호실거시니 일국의 그 아름다운 일흠이 진동할 거신직, 니 엇지 왕위를 바리리오’ 하며 한 계교을 생각호고 부왕과 모후게 고왈, “성의가 서역의 간 지거의 반 연이 되도록 소식이 묘연호오니 소자 중노의 나어가 소식을 탐지호고, 만일 풍파의 불행한 일이 잇스오면 소자 서천에 드러가 약을 구호여 오린이다.” …중략… 향의 문듯 선상의 놀피 안자 고성디믹 왈, “네 거짓 서역의 가 일영주를 구호여 온다 호고 병모을 이져 바리고 불도의 침혹호여 이제야 도라오니 엇지 인즈정의라 호리요. 이는 천하의 불효라. 모후게서 너를 보시면 병세 더하실 거시니 여등은 쌀이 물의 빠져 부왕의 명을 순수호라.”…중략… 향의 불승분노호여 달여드러 성의 두 눈을 칼노 질너 썬니 비 안의 업더지며 양안 피가 흘러 옥면을 적시는지라. 성의 탄 비 썬각을 썬쳐 한 썬각 우의 안치고 물결 우의 밀치니 아지 못겨라. 그 사싱을 뒤라셔 알이요? 천지신명호사 효자를 보존케 하실가 종말을 불지여다.(320~326쪽)

성의는 향의의 모략에 의해 일영주를 빼앗기고 두 눈까지 잃고 바다를 떠돌게 되는 시련에 빠진다. 적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차자인 성의보다 모든 면

에서 부족하고 왕의 신임도 받지 못하는 항의가 왕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의의 뛰어난 능력의 발휘나 지극한 효성의 증거라 할 수 있는 일영주 획득은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쾌악적인 일을 저지른 것이다.

<적성의전>은 오든이 말하는 탐색담의 여섯 가지 요소 중에서 ④시련, ⑤파수꾼, ⑥원조자에 해당하는 서사도 보여주고 있다. ⑤파수꾼의 경우 상반되는 성질의 존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항의와 같은 인물은 그 자체로 주인공에게 시련을 주는 악의적인 존재로서의 부정적 의미를 지닌 파수꾼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일영주를 획득하기 전, 성의의 능력을 시험해보는 의도로서 시련을 겪게 한 바다짐승이나 여러 선관들 또한 항의와는 다른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⑤파수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은 곧 성의가 지닌 효성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즉 오든이 말하는 탐색담의 요소인 ‘파수꾼’이라는 존재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영웅의 능력’은 <적성의전>에서는 성의의 ‘효’ 그 자체를 증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의의 ‘효’가 검증되고 증명되었기 때문에 선관이 성의를 서천서역으로 인도했으며, 마침내 천생금불보탑존자(天生金佛寶塔尊者)에게도 효성을 인정받아 일영주 획득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성의를 서천서역으로 인도해주고, 일영주를 획득한 성의를 다시 현실세계로 데려다주는 선관은 ⑥원조자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성의에게 본국으로 그만 돌아가 부모 얼굴을 뵈는 게 더 옳다며 서천서역으로 가는 길을 멈출 것을 권유하는 선인이 “나는 본래 (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 등 온갖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선경(仙境)을 돌아보았어도 서천은 보지 못하

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서천서역이란 공간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선인조차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서역을 오고갈 수 있는 존재는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영험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인간인 성의를 파초선에 태워 약수를 건널 수 있게 도와주며, 바다 귀신을 막아주는 영험한 부적을 주는 선인은 ‘지식과 초자연적인 힘으로 영웅을 돕는 원조자’이다.

마지막으로 <적성의전>에서 ④시련 요소에 해당하는 서사는 왕의 자질이 부족한 것은 물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장자로서 아우에게 본보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아우를 해치고자 하는 패륜적인 인물인 항의를 두고 ‘하찮은 존재’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적성의전>의 서사에서 주인공 성의와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이며, ‘하찮은 존재’인 항의가 성의가 구해온 일영주를 가로채고 두 눈을 멀게 만든 장본인이기에 성의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결코 가벼운 존재감을 지닌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성의라는 뛰어난 인물에게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지만 오히려 이런 과정을 계기로 성의의 바른 인물됨과 지극한 효성을 강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④시련 요소에서 말하는 ‘하찮은 존재’를 항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든이 제시한 탐색담의 여섯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 <적성의전>을 분석해 보았다. <적성의전>에 나타나는 탐색담은 효성이 지극한 인물인 성의가 모후의 득병을 계기로 효심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현하는 동기를 얻고, 치료제인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 서천서역의 공간으로 떠나면서 ‘효의 실현’을 위해 온갖 시련을 겪고 끝내 탐색의 목적물이었던 일영주를 획득하는 이야기이다. 서천서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성의가 겪었던 시련과 난제 속에서는 효의 극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영주의 획득은 곧 성의의 효가 실현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영주의 획득은 효의 실현 그 자체이다.

3) 탐색담으로서 ‘서천서역’의 의미

<적성의전>의 탐색담은 서사무가인 <바리데기>와도 매우 유사하다. <바리데기>는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딸이 병에 걸린 부모를 살리기 위해 서천서역으로 구약여행을 떠났다가 시련 끝에 약수를 얻어온다는 이야기이다. <적성의전>과 <바리데기>는 소설과 서사무가라는 장르의 차이를 보이지만 두 작품 모두 탐색담의 구조를 보이고, 특히 구약을 위한 탐색의 동기와 탐색의 과정, 그리고 혈육지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점에서 <적성의전>과 매우 유사한 탐색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작품의 탐색의 계기는 부모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약을 구하기 위한 것이며, 그 탐색이 펼쳐지는 공간 또한 서천서역으로 같다는 점, 그리고 귀환의 과정에서 혈육의 방해가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서 <적성의전>의 탐색담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탐색담이 펼쳐지는 공간인 서천서역의 의미 또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적성의전>과 <바리데기>에서 탐색담이 펼쳐지는 공간은 ‘서천서역’으로 두 주인공이 본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시련을 겪는 곳이자 난제를 해결하고 결국엔 목적물을 얻는 곳으로 두 탐색담의 구약화소를 비교·분석하여 ‘서천서역’의 공간이 <적성의전>의 효의 실현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적성의전>과 <바리데기>는 공통된 구약화소를 지니고 있다. 부모의 병

을 치유하고자 약을 구하러 떠나는 여정이나 서천서역의 세계로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점, 탐색의 과정에서 원조자의 도움을 받아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는 점, 그리고 치유약을 획득하여 귀환의 과정을 밟는 점, 마지막으로 부모의 병을 치유하는데 성공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적성의전>과 <바리데기>에서 탐색담을 이끄는 주인공은 성의와 바리데기인데 두 인물 모두 장자나 장녀가 아니다. 성의는 왕위를 계승할 형 향의가 있으며, 바리데기는 일곱 명의 공주 중 막내이다. 더군다나 성의가 부모의 총애를 받고 자란 것과는 다르게 바리데기는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까지 받은 존재이다. 그러나 두 주인공에게 왕위계승자가 아니라는 조건이나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사실 때문에 험난한 여정을 눈앞에 두고 주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 향의는 모후의 병환을 돌보지 않을뿐더러 시기와 열등감에 빠져 동생을 해할 기회만 노리고 있으며, 여섯 공주는 모두 핑계를 대고 약을 구하러 가는 것을 거부한다. 부모의 득병으로 인한 험난한 여정 앞에서의 자식들의 태도는 성의와 바리데기, 그리고 향의와 여섯 공주의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즉 향의와 여섯 공주의 행동은 험난한 여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부모를 위해 길을 떠나는 성의와 바리데기의 지극한 효성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특히 장자나 장녀가 있음에도 차자나 막내가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장자나 장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는 보편적인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 오히려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효행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그 효행의 가치와 감동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힘을 부여해준다. 또한 두 작품의 주인공의 효의 실현을 위한 행동화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타고난 성품과 효성이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게 그러지는데 이것은 탐색

의 자격이 주어지는 주인공의 능력과 소명의식의 타당성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탐색의 자격은 부모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영험한 약물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목되는 성의와 바리공주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적성의전>과 <바리데기>의 탐색담의 동기와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시련과 난제의 해결, 그리고 약물의 획득이 가능했던 것은 성의와 바리데기의 지극한 효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효의 동기와 효를 행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일영주 또는 약수물로 상징화되는 지극한 효의 실현이 ‘효’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적성의전>과 <바리데기>에서 드러나는 탐색담의 구조는 매우 유사하다. 성의와 바리데기는 구약을 위한 탐색의 과정에서 시련을 겪지만 조력자의 도움과 본인의 능력으로 모든 난제를 통과하고 부모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획득하는데 성공한다. 또한 귀환하는 과정에서 성의는 형 항의의 방해로 귀환의 실패를 겪고, 바리데기는 이본에 따라 다르지만 자매들의 방해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두 탐색담은 결말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탐색담에서 탐색의 주인공은 고난 끝에 찾던 것을 찾게 됨으로써 왕위에 오르거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으로 서술된다.³⁵⁾ <바리데기>의 경우는 ‘구약→귀환 시도→(자매의 방해)→귀환의 성공’의 단계를 거쳐 무조신으로 좌정하고 탐색의 여정이 끝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그러나 <적성의전>은 ‘구약→귀환 시도→형제의 방해→귀환 실패→새로운 여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 항의의 방해로 귀환의 실패 후 다른 공간으로 이

35)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78, 66~67쪽 참조.

동하면서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된다. 즉 <적성의전>에서 서천서역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서사는 오든이 밝힌 탐색담의 여섯 가지 필수요소가 충족되어 있으나 기존의 보편적인 탐색담의 결말과 다르게 또 다른 공간으로 서사가 이동하여 새로운 사건이 펼쳐지며, 이것은 탐색담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적성의전>은 서천서역의 공간 안에서 탐색담의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복귀의 과정에서는 차별화된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적성의전>이 <바리데기>나 다른 탐색담 속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영웅의 일생 구조’나 ‘영웅적 인물’의 면모를 강조하기보다는 그의 ‘영웅성’의 본질이나 ‘영웅적 면모’의 목적이 성의의 지극한 효의 극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적성의전>이 보통의 구약담이나 기존의 고전소설에서 보여주었던 영웅의 탐색담에서 구현하는 일반적인 ‘영웅’의 이야기였다면 약을 획득한 다음 본국으로 귀환하여 모후의 병을 치유하고 그 공적을 인정받아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결말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적성의전>은 성의가 일영주를 획득하여 귀환하는 도중에 형 항의의 방해로 귀환에 실패하고 또 다른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따라서 <적성의전>은 일반적인 구약 탐색담이나 영웅담과는 차별화되는 구조가 돋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성의전>의 효는 곧 ‘영웅성’으로 대치된다. 즉 성의라는 영웅의 영웅적 면모와 영웅으로서의 성장은 ‘효의 실행’과 ‘효의 실현’, 그리고 ‘효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영주 획득으로 성의의 효가 ‘영웅’의 완성이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의는 본래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태어났으며, 그의 천성에 가까운 효는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이 곧 성의가 영웅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영웅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적성의전>의 서사는 일영주 획득으로 인한 탐색담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여정으로 이어져 효의 완성과 그를 통한 영웅으로의 성장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였다. 따라서 효를 통한 주인공 성의의 영웅으로서의 성장은 <적성의전>의 효의 가치를 한 차원 더 높은 것으로 끌어올렸다. 즉 탐색담의 구조가 펼쳐지는 서천서역의 공간을 통해 주인공 성의가 효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자격의 서사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적성의전>은 물론 <바리데기>의 구약이 펼쳐지는 탐색의 장소는 모두 ‘서천서역’이란 공간으로 성의와 바리데기가 탐색을 펼치는 서천서역은 탐색의 목적물인 일영주와 약수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두 공간이 띄고 있는 색채는 조금 다르다. 성의가 서천서역에서 만나는 천생금불보탑존자(天生金佛寶塔尊者)나 바리데기가 만나는 석가세존(釋迦世尊)은 모두 불교적 경지에 오른 상징적인 존재들이다.

특히 <적성의전>은 불교의 경전을 근원으로 하는 변용기 국문소설로, 구체적으로는 <<현우경>>, <<사분율>> 등의 중국의 여러 한역경전을 거쳐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 불전들이 국문으로 번안되는 중에 많은 변용을 보여 왔다.³⁶⁾ <적성의전>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밝혀낸 것처럼 <<현우경>> 소재의 <선사태자입해품>³⁷⁾과 그 영향을 받은 <선우태자

36) 손미경, 앞의 논문, 20쪽.

37) 「선사태자입해품」의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 (1) 아아난다가 부처에게 부처를 해치려 하는 데바닷타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묻다.
- (2) 잠부드비아과의 늑나발미 왕이 아들이 없어 山川에 기도를 드리고 하늘신의 계시를 얻어 두 아들을 낳다.
- (3) 첫째 아들은 선사(善事)라 이름 짓고, 둘째 아들은 악사(惡事)라 하였다.

전>38)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의 전> 또한 불교적 세계의 영향 관계에 놓여 있으며, 전체적인 서사의 맥락이 유사하다. 그러나 <선사태자입해품>이나 <선우태자전>에서 여의주를 구하려는 목적이 중생을 위한 보시(布施)를 행하기 위한 것으로 불교 교리에서 중요시 하는 ‘출가’의 의미로서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적성의전>이

-
- (4) 왕은 오로지 선사태자만을 아끼고 사랑하다.
 - (5) 선사가 거지, 백정, 농부, 사냥꾼, 어부의 생활을 보고 근심에 빠지다.
 - (6) 선사가 왕께 칭해 창고를 열어 중생을 보시하다.
 - (7) 선사가 중생을 보시하기 위해 자청하여 용왕궁에 여의주를 구하러 떠나다.
 - (8) 선사가 여의주를 얻다.
 - (9) 사람들이 보물을 탐한 탓에 배가 침몰하자 선사가 악사를 구해주고 갖고 있던 구슬을 보여준다.
 - (10) 악사가 선사의 두 눈을 찢러 멀게 하고 구슬을 챙겨 떠나다.
 - (11) 선사가 목우인의 구원을 받아 이사발타국 왕의 동산지기가 되다.
 - (12) 악사가 왕에게 선사의 죽음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왕이 선사가 사랑하던 기러기에 편지를 매달아 보낸다.
 - (13) 선사가 기러기의 편지에 답장을 써서 보낸다.
 - (14) 선사와 이사발타국 공주와 혼인하고 공주의 사랑과 자비의 맹세로 다시 눈을 뜨게 되다.
 - (15) 선사의 편지를 받은 부왕과 왕비가 악사를 옥에 가두고 사신을 보낸다.
 - (16) 선사가 본국으로 돌아오고 왕께 칭하여 악사를 용서하다.
 - (17) 선사가 여의주를 찾아 중생을 위해 끝없는 보시를 행하다.
 - (18) 부처가 아아난다에게 이것이 자신의 전생담이라 알려준다.
- 38) 「선우태자전」의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 (1) 과거세시 파라내국 마사라사왕이 신께 기도해 두 명의 아들을 낳다.
 - (2) 선우는 성품이 인자하고 중생이 겪는 고통을 불쌍히 여기다.
 - (3) 선우가 왕께 부탁하여 국고를 풀어 재보음식으로 중생을 보시하다.
 - (4) 국고가 탕진되자 보시를 중단하고 선우태자는 용왕의 여의마니보주를 얻기 위해 바다로 떠나다.
 - (5) 선우가 용왕으로부터 보주를 얻다.
 - (6) 선우가 악우에게 두 눈을 찢러 눈이 멀게 되고, 여의보주를 빼앗기다.
 - (7) 선우가 이사발타국에서 고통과 굶주림으로 방황하다 과원의 새매 쫓는 일을 하던 중 왕녀를 만나다.
 - (8) 선우가 왕녀와 혼인하고 왕녀의 서원으로 눈을 뜨게 되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다.
 - (9) 왕과 왕비가 선우의 기러기를 통해 선우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에 선우가 답신을 하다.
 - (10) 선우의 편지를 받고 부왕과 왕비가 악우를 옥에 가두다.
 - (11) 선우가 귀국하여 악우를 용서해주고 보주로 부모의 눈을 뜨게 하고 중생을 보시하다.

나 <바리데기>는 부모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탐색을 떠난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출가 의도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족의 문제로 매우 축소되어 있다. 즉 <적성의전> 형성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선사태자입해품>과 <선우태자전>은 모두 불교 설화의 영향으로 출가로 시작된 탐색의 의미와 목적이 중생구제 혹은 불교적 자비와 보시의 행함에 있다면 <적성의전>은 불교적 색채가 소거되어 개인적인 목적인 부모의 병환을 치유하기 위한 출가로 변용되었다.

<바리데기>는 그 장르가 서사무가로 신으로 좌정하는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일종의 무조신의 탄생 내력과 좌정 경위를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서역의 공간 역시 무교적 색채가 짙으며, 바리데기의 효행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그 효행의 과정을 거쳐 무조신으로 좌정하는 당위성과 내력을 풀이하는 서사이다. 즉 바리데기의 탐색담은 효녀의 이야기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 본질은 무조신으로서 좌정하는 경위를 담은 것으로 그 과정의 배경이자 공간인 ‘서천서역’의 성격 역시 무속적인 의미를 지닌 곳이다.

앞서 언급했듯 <적성의전>은 불교적 설화의 바탕 속에서 변용되어 그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지만 불교적인 요소나 정신이나 세계관을 강조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교적 정신은 소거되어 있다. 성의의 출가 역시 불교적 정신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목적인 부모의 병환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제의 획득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적성의전>의 구약 여정이 펼쳐지는 탐색의 배경이자 공간인 ‘서천서역’은 주인공 성의의 효를 시험하고 효행이 펼쳐지는 곳이며, 일영주의 획득을 통한 효의 실현의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유교적인 의미를 지닌 곳이다.

마지막으로 성의가 일영주를 획득하는 것은 곧 효성에서 시작된 구약여정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고, 일영주로 모후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볼 때 ‘효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의는 본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항의에게 일영주를 빼앗겨 직접적으로 일영주를 모후에게 건네주지 못하는 점, 그리고 두 눈이 먼 채로 유랑하게 되어 자신의 생사조차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왕과 왕후는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다. 일영주로 모후의 병을 치료하여 효를 행한 것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부모 봉양의 효에 부합하지만 진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정신적인 봉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신적인 봉양이나 양지(養志)의 효를 무엇보다 더 중요시하는 유교적 효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일영주 획득과 이를 통한 모후 병환의 치유는 ‘효의 실현’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항의의 방해로 미완성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과 귀환의 성공이 이루어질 때, 성의의 ‘효의 실현’도 완성이 될 수 있기에 서천서역이라는 공간에서 보여줬던 효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성장과 완성을 위한 서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2. 효의 지속과 영웅담

탐색담의 주인공은 고난 끝에 찾던 것을 찾게 됨으로써 왕위에 오르거나 왕의 사위가 되는 모습³⁹⁾을 보이지만 <적성의전>은 성의의 일영주 획득이 이야기의 종결이 아닌 성의의 안맹이라는 새로운 사건의 국면으로 이어지고 주인공의 여정은 ‘중국’이란 공간으로 옮겨진다. ‘중국’이란 공간은 성의의 시력이 회복되는 개인의 공간으로 어둠이라는 고난 속에 빠졌던 성의에게 새로운 지위와 자격의 획득이라는 영웅성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평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에 성의의 효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다. 즉 ‘중국’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지형적 의미의 공간 외에 영웅성을 확보하는 초월적인 공간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1) 새로운 여정과 극적인 구원

<적성의전>의 전체 서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성의가 항의의 방해로 본국으로의 귀환에 실패하고, 두 눈이 먼 채로 표류하다 호승상에게 구출되어 중국 황실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서천서역’에서 ‘중국’으로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서천서역의 공간에서 일영주를 획득하기 위해 겪었던 바다짐승의 위협이나 인간의 힘만으로는 길조차 알 수 없었던 고난과 비교해 볼 때, 우의를 가릴 수는 없지만 두 눈을 잃은 성의가 겪을 심리적인 고통의 무게와 시련

39) 김열규, 위의 책, 66~67쪽 참조.

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각설, 잇디 성의 한 쓰각 판자을 의지하여썸이 어지 가련치 아니 하리오? 두 눈이 어두어쓰니 천지일월성신이며 만물을 엇지 알리오 동서남북을 엇지 분별 하며 흙벽장단을 어이 알리오? 다만 바람이 차면 밤인 줄 알고 일기가 다수온 직 나진 줄 짐작하는 만경창파의 금수 소리도 업는지라. 삼일 삼야만의 판장 쓰각이 다닷는 곳지 잇는지라. 놀니여 손으로 어로만지니 큰 바우라. 기여 올라 정신을 수습하여 바위를 의지하고 안자 탄식 왈, “사형이 엇지 이디지 불 양하여 무죄한 인명을 창파 중의 원혼이 되게 하고 날노 하여금 이 지경이 되 게 하여쓰니 이제는 부모가 져티 계신들 열고을 아지 못하게 되어쓰니 엇지 통한치 아니하리오? 그러는 모친 환우가 엇더하신지, 일령쥬을 써는지 아지 못하니 엇지 원통치 아니하며, 인자하신 우리 모친이 속절업시 황천의 도라가시도 다.”(328쪽)

항의에게 일영주를 빼앗기고 두 눈까지 잃게 된 성의가 맞닥뜨리게 된 세상은 어둠 그 자체이다. 더군다나 자신을 공격하고 모함한 적대자가 형 항의라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효성이 지극한 성의에게 가장 큰 고통과 시련은 항의가 일영주를 제대로 전했는지에 대한 염려와 모후의 환후가 어떠한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더군다나 부모를 위하는 효성이 지극한 성의에게 두 눈을 잃고 폐맹이 된 자신의 처지는 그 자체로 불효나 다름없기에 창천(蒼天)이 찢어지도록 슬피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유교에서 효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 ‘신체발부수지부모 불감훼상효지사야

(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孝之始也)’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잘 보존하여 훼손하지 않는 것이 곧 효도의 시작이자 기본이라는 뜻이다. 성의가 모후의 병환을 치유하기 위해 서천서역으로 험난한 여정을 떠난 것이 부모를 위한 자식의 희생적인 효였다면 항의의 불측한 음해로 두 눈을 잃고 부모에게 생사조차 알릴 수 없게 된 자식은 본의는 아닐지라도 유교적 효 윤리로 볼 때, 불효를 끼치는 것이다.

두 눈을 잃고 널조각에 의지하여 바다를 떠돌던 성의에게 보이지 않는 눈 앞의 현실은 서천서역으로 가던 중에 바다짐승을 만났을 때보다 더욱 난처하고 막막했을 것이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도 성의의 효심은 흔들림이 없다.

차시의 성의 오작의게 밥을 부치고 단저로 버슬 삼어 심회를 덜며 일분도 그 형을 원망치 아니하고, 주야의 부모를 생각하니 그 천성디효을 천지신명이 엇지 도읍지 아니하리오.(330쪽)

성의의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킬 만큼 매우 극진하였기에 극적인 구원을 받기에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적성의전>의 주인공을 움직이고, 그 주인공을 도와주고 인정해주는 힘과 원칙, 그리고 기준은 얼마나 지극정성한 ‘효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ㄱ) 하늘을 우르러 단식을 마지 아니 하더니 문 듯 처이한 소리 들이거늘 귀을 기우려 드르며 헤아리되, ‘이는 분명한 디소리로다. 이갓던 디히 중의 엇지 더밧치 잇는고’ 하며 ‘이는 반다시 축나라 싯히로다’ 하고 소리를 조

차 리러가고져 하더니, 문 듯 오작이 우지지며 손의 자연 집피난 거시 잇 거늘 이논곳 실과라. 먹은이 벉 부른지라 정신이 상쾌하거늘, 인호여 오작의게 사례호고 인호여 바우에 니려 죽님을 차자가니 울밀한 죽님이라. 드르니 그중의 한 디가 금풍을 짜라 스사로 응호여 우는지라. 여러 디을 더듬어 우는 디을 차자 잡고 낭 중의 칼을 니 디을 베여 단저를 만드려 셔 한 곡조를 부니 소리 쳐량호여 산천초목이 다 우질기논 듯호더라. 차시의 성의 오작의게 밥을 부치고 단저로 벉슬 삼어 심회를 덜며 일본도 그 형을 원망치 아니호고, 주야의 부모을 생각호니 그 천성디효을 천지신명이 엇지 도움지 아니호리오. 각설, 잇디 중국의 호마령리라 하는 지상이 릿시니 벉살이 승상의 오른지라. 황명을 밧자와 남일국의 사신 갖다가 삼삭만의 도라오더니 이 곳디 리르러 일행을 쉬더니, 청풍은 셔리호고 수과는 고요한디 체량한 것소리 풍편의 들이거늘 호승상이 헤오디, ‘이 고슨 무인지경이라. 분명 선동이 옥저을 부러 속각을 히롱호는쏘다’ 호고 시동을 명호여, “저소리 나는 곳을 차자 보라.”(328~330쪽)

(ㄴ) 승상 왈, “너를 보니 안평국 사람이라. 니 네을 이 곳의 바리고 가면 필경의 명을 보존치 못 하리라.”호시고 즉시 성의를 다리고 길을 지촉하야 여러 놀만의 황성의 득달호야 천자전의 숙비하온디 상이 칭찬을 마지 안이 하시더라. 승상이 쏘 복지하야 성의를 다려온 사연을 낫낫치 고하니, 상이 청과의, “인견호라.”호시니 승상이 성의를 다리고 드러와 옥계하의 부복 지비하거늘, 상이 보시니, ‘비록 밍인이는 옥안선풍이 진짓 진남자라!’ 차탄하시고 문왈, “짐이 드르니 단저을 잘 분다 하기로 한 번 듯고자 호노라.” 성의 고두수명호고 단저를 들고 어전의셔 한 곡조를 부니, 청익한 저소리 빈공 소사논며 사람의 심간을 황홀케 호는지라. 상이 칭찬 왈, “이 아니 선동이나?” 하시고 황궐 후원의다 거쳐하여 두시니라.(332~334쪽)

위에서 제시한 인용문은 성의가 우연히 발견한 대숲에서 신이한 대나무 한 대를 베어 짧은 피리를 만들어 곡조를 불게 되는데 사신 행차를 다녀오는 호승상이 듣게 되면서 성의와 호승상의 인연이 시작되는 장면이다. 바다 한가운데를 표류하던 성의가 당도한 곳이 신비한 소리를 내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던 곳이었으며, 우연찮게 그곳을 지나던 호승상의 눈에 띄게 되는데 이는 곧 성의의 ‘천성대효(天性大孝)’에 감동한 천지신명이 만들어낸 운명적 만남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호승상과의 인연을 맺게 해준 직접적인 원인인 성의의 대저 부는 숨씨였는데 이것 역시 호승상을 대신해 성의를 구출하기 위해 천지신명이 내려준 신이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성의의 연주 숨씨는 호승상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었으며, 중국 황제도 황홀하게 만들어 황실 후원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즉 성의의 지극한 효성은 하늘을 감동시켜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와 신이한 능력을 부여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며, 성의의 신이한 능력은 곧 그가 지니고 있는 ‘효’의 영웅적인 면모 중의 하나이다.

성의의 지극한 효심은 그를 서천서역으로의 여정을 떠나게 했으며, 일영주 획득으로 항의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 두 눈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계기와 능력 또한 성의의 효심 덕분이었다.

2) 고난과 회복의 계기

성의를 두 눈을 잃은 뒤로 안평국 왕자에서 부모·형제도 없이 유랑하는 맹인의 삶으로 전락했다가 호승상의 도움으로 중국 황실에서 지내게 되는 인생의 격변을 겪는다. 이 모든 격변은 성의를 안평국 왕자의 삶에서 이탈시키고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신분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게 되는 계기로 안맹이 되는 것과 동시에 본래의 삶은 어둠 속에 숨겨지고, 암흑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한다. 즉 성의의 안맹은 단순히 항의의 시기심과 불측한 계략에 의해 받은 고통과 시련,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본래의 인생을 깨트린 일종의 삶의 장애이자 고난 그 자체이다. 삶의 장애와 고난은 곧 부모와 자식 간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는 곧 ‘효성의 삶’을 살았던 성의에게 효를 실천할 수 없게 만드는 ‘효의 고난’을 가져온 것이다.

이적의 안평국 왕자 적성의 동산 약부의 잇서 세월리 여류하야 성의의 나히 십삼 세라. 말이 직창의 외로이 안자 고향을 생각호고 신세을 생각호니 엇지 아니 슬플소나. 기리 탄식 왈, “모비 병환은 엇더하시며 부왕 존후 무량호신지 소식이 돈절호니 이답고 이답호도다. 니 전일 양육하던 기러기는 사라는가? 죽어는가? 만일 사라스면 소식을 전하련마는 일차 소식 돈절호니 아무리 미물인들 어이 그리 무정호요.” 직창고침 명월야의 처량한 마음을 이기지 못호야 신세을 자탄호다가 사향일곡을 만드려 단소로 푸러니니 이원호 단소성이 월하의 늪피 써서 사람의 이을 쓰는 듯호더라.(336쪽)

안평국을 떠나올 때의 12세였던 성의는 어느덧 13세가 되었고, 흘러간 시간의 무게만큼 부모와의 유리된 삶은 그의 단저 소리를 더욱 애달프게 만든다. 무엇보다 변함없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효성스러운 심성을 지닌 성의에게 중국에서의 또 다른 삶은 심리적 고난의 여정이다. 성의의 심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그의 탄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은 보화가 구산갓치 썩엿신들 쓸 고시 어디미뇨? 타국의 몸이 잇서 쌍친의 안부를 무를 쏘시 바이 업고, 인지중 너의 모후 병환은 엇지 되며, 불초자를 생각흐사 얼마나 늑기시난지 서천의 드러가 약을 어더 도라오다가 정성이 부족흐여 불척한 사형 손의 희을 바다 일월 못 보난 병신이되야 창강 말이 벽파상 십이 세 어린 거시 안밍되여 볼 수 업고, 목판 한쪽을 부여 타고 바람 부는 디로 물결 치는 디로 써밀여서 중국의 유락흐여 잔명을 보존하야 일신은 무량흐나 부모을 생각흐고 고국사를 생각흐니 실푼 맘음 끈칠 나리 저이 업네. 망극할시 너이리야! 명천은 성의의 사정을 살피소서.” 하며 누무리 비오듯 흐여 양천자탄으로 전전불미한들 뉘라셔 위로할고.(348쪽)

성의의 단저 연주 솜씨는 호승상은 물론 중국 황제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고, 연주만으로 금은보화를 산디미처럼 하사 받았으나 타국에서 부모의 소식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생사를 몰라 걱정하실 부모 생각에 앞을 보지 못하는 안맹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는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금은보화와 대비되어 더욱 비참하였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재물이 많을지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혹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심만큼 값진 것이 없다는

성의를 확고한 가치관이 드러난다. 이처럼 몸은 편안할지 몰라도 마음은 늘 부모를 향해 그리움과 탄식에 뒤엉켜 있을 성의에게 중국은 안식과 구원, 그리고 동시에 어둠과 고난의 공간이라 할 수 있기에 ‘중국’은 매우 이중적인 속성을 지닌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성의의 개안을 통해 고난이 극복되고, 다시 효를 행할 수 있는 회복의 계기 또한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국’이라는 공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고난을 겪고 있던 성의의 효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는 기러기의 전신(傳信) 덕분이었다. 앞의 인용문에서도 성의가 “니 전일 양육하던 기러기는 사라는가? 죽어는가? 만일 사라지면 소식을 전하련마는 일차 소식 돈절히니 아무리 미물인들 어이 그리 무정하오.”라고 언급한 바 있듯이 기러기는 성의의 생사여부와 본국의 부모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차시는 하말추초여늘 어이한 기러인다? 네 비록 김싱이나 삼천우조 중의 유의한지라. 성의에 소식을 전코져 왔느냐?” 하시며 눈물을 금치 못하더니 기러기 또 울거늘 고히 역여 시녀을 불너 무르신디 시녀 고왈, “전일의 공자 기루시던 기러이로소이다. 연전의 공자 립헝시의 기러기을 어로만지시며 경계왈, ‘네 날노 더부러 일지도 썩느미 업더니, 니 이제 곤전 환우로 하여곰 누말이 원정의 가 약을 구하여 도라올 거시니 기간 원별을 당하미 창연하느 너는 부더 처소를 썩나지 말고 나 도라오기를 기달여 조히 잇스라. 만일 그간의 무삼 소식이 닛거던 곳 전하라. 지금 썩느미 언제나 서로 상봉하라? 원정의 만왈 할가 저어하노라’ ……중략…… 네 주인 말일 사라썩든 니 압폐셔 세 번만 울

나.” 하시니 기러기 고기를 들던니 나리를 치며 큰 소리로 세 번을 울거늘 왕비 일히일비하시며, “네 정영 이논가 십푸드.” 하시고 즉시 성의 방중의 드리기가 지필을 드니 홍중 답답하야 두 눈니 정신이 상막한지라. 게우 진정하야 일봉 서찰을 쓰며 왈, “네 님지 사라스면 그 곳을 차자가서 니 편지를 전할손야?” 하시니 기러기 머리를 세 번 수기거늘 왕비 즉시 서찰을 기러기 다리의 띠고 경계 왈, “네 두 나리로 창천 말이 단이논 지조가 잇스니 부디 네 주인을 차자 신전하코 도라와 전전불미하논 니 마음을 덜게 하라. 기러가 너 도라오기 전은 니 엇지 자리의 편이 놓기를 바리랴?”(354~356쪽)

성의가 지내던 기러기의 존재를 왕비가 발견하게 되면서 <적성의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기러기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성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 행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시력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성의를 대신해 모후의 편지를 전해주면서 성의의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기러기의 전신(傳信)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의미는 성의의 ‘개안(開眼)’의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공주와 모든 시녀 심신이 비월하야 만단 의혹하더니 기러기 금각전 난간을 날기로 치며 일고성을 지르더니 성의 압피 드러와 안지며 목을 늘러 슬피 울더니 고기를 드러 성의의 몸을 이치니 성의 그제야 자기 기루던 기러기 온 줄 췌이 알고 급피 두 손으로 기러기를 덤석 안꼬 원몸을 어로만지며 체읍 낙누 왈, “네가 이제 나를 차져 여기 오니 반다시 중전췌셔 승하하시도다.” 언파의 기러기 목을 안고 혼절하거늘 좌우시녀 급피 구완할시 공주 신기하물 이기지 못하여 자서이 살펴보니 기러기 다리에 일봉 서찰이 띠엇거늘 빗비 쓸너 보니 피봉의 하여쓰되, ‘안평국 국모논 아자 성의의게 부치노라’ 하엿거늘 공주 보고 니

심의 경히하여 왕공자인 조를 알고 위로 왈, “기러기 다리의 서찰을 미고 와쓴 이 공자는 정신을 진정호소셔. 니 씨혀 보린이다.” ……중략……잇디 성의 정신을 진정호야 편지를 듯기을 다하미 가삼이 씨여지난 듯호고 간장이 녹난 듯 일변 반갑고 일변은 슬픈지라. 정신이 쇠락호여 밧비 리러나 편지을 향호야 사 비하러 할제 문득 두 눈이 불빛치 리러나며 번기갓치 썩이니 비컨디, 청천벽일 리 흑운을 헛침갓고 칠야 삼경의 명월을 디한 듯 일변 반갑고 길거운 마음을 엇지 다 성언하리오. 천지 감동호사 상한 눈을 다시 보니 일월리 명농호야 의 구이 빗치도다. 심시인지 몽중인지 씨닷지 못할네라.(362~368쪽)

황실 후원에서 지내던 성의는 채란공주와 함께 술을 마시며, 단저와 거문고를 연주하고 글을 지어 화답하며 노닐다가 자신이 안평국에서 기르던 기러기가 전해준 모후의 편지를 받자 개안을 하게 된다. 이처럼 성의의 갑작스런 시력 회복은 기러기가 전해준 모후의 편지를 읽은 직후로 개안의 시점이 매우 의미 깊다.

성이의 안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형 향의의 습격에 의한 것이었지만 모든 사건의 발단은 모후의 득병에서 시작되었기에 성의의 안맹은 모후의 치유를 위한 지극한 효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는 것 역시 모후의 편지를 받은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성의의 시력 회복은 일종의 효행으로 받은 ‘상처의 치유’라 볼 수 있으며 치유의 과정 역시 ‘효행의 보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의의 개안과 기러기 전신(傳信)을 통한 모후의 편지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효행으로 받은 상처의 치유’ 혹은 ‘효행의 보상’으로만 볼 수 없다. <적성의전>의 탐색 여정의 시작과 시련, 그리고 난제를 극복하는 과

정들의 동기는 모후의 득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병환을 얻는 대상과 구약 여정의 동기가 되는 대상이 왕 혹은 아버지가 아닌 왕비인 어머니라는 점이다. 구약 여정이 잘 드러나며 탐색담의 유형으로 자주 거론되는 <바리데기>의 경우 이본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만 왕과 왕비 모두 병환을 얻거나 왕이 병에 걸리는 설정이며, 역시 구약 여정과 탐색담의 유형 중 하나인 그림(Grimm)의 <생명수>에서도 구약 여정의 동기가 되는 것은 바로 왕의 득병이다. 두 탐색담에서는 왕 혹은 아버지가 구약 여정의 동기가 되는 것과 달리 <적성의전>에서는 왕비인 어머니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자식 된 도리로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봉양하는 것은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는 유교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라 할 수 있을 만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며,⁴⁰⁾ 효를 행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거나 우위에 있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체 속에 잉태되어 열 달이라는 시간을 한 몸으로 지내고 태어났기에 모자(母子) 사이는 조금 더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0) <적성의전>에서 성의가 보여준 희생을 통한 효행이 인류 보편적인 정서라는데 대한 근거로 오든(W. H. Auden)이 <탐색영웅(The Quest Hero)>에서 탐색담의 구조를 밝힐 때, 예로 들었던 그림(Grimm)의 「생명수」를 들 수 있다. 병에 걸린 왕을 구하기 위해 험난한 구약 여정을 떠나는 세 명의 형제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셋째 아들은 두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까지 받고,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결국에는 왕을 살려내는데 성공하고, 공주와 결혼을 하며, 두 형들이 징치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탐색담이다. <생명수>의 탐색담의 구조와 특히 왕을 살리기 위해 구약 여정을 떠나고 형제의 방해로 받는다는 서사는 <적성의전>의 탐색담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여정의 시작이 부모를 살리기 위한 희생적인 효의 정신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부모를 살리기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를 보여주는 자식의 도리는 동서양을 막론한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

<적성의전>의 성의 역시 모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났으며, 모후를 위해 힘겨운 구약 여정을 떠나 안맹이 되는 참변까지 겪게 된다. 그리고 성의가 다시 시력을 되찾게 되는 것 역시 모후의 편지를 받은 직후부터이다. 이것은 곧 모성에 의한 두 번째 탄생으로 성의가 고난의 삶에서 깨어나, 어둠을 뚫고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신이한 일은 모후의 애타는 모성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바다를 떠돌며 유랑하던 성의가 호승상에게 구출되어 중국으로 오게 된 일과 황실의 후원에서 지낼 수 있었던 일 모두 조력자의 도움 덕분이었으며, 조력자의 등장이나 존재 자체부터 인간의 힘으로 가능했다는 것보다는 성의의 지성대효(至誠大孝)에 감동한 천상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의가 우연히 발견한 대나무밭에서 얻은 특별한 단저로 호승상에게 눈에 띄고, 황제의 관심을 받으며, 채란공주와의 인연도 가능했던 것 역시 신이한 능력의 획득 덕분이었다. 그런데도 성의의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아 주는 신이한 기적은 그 어떤 사건이나 조력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으며,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만큼 성의의 안맹은 <적성의전>에서 가장 큰 사건이자 가장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었다.

타국의 몸이 잇서 쌍친의 안부를 무를 쏘시 바이 업고, 이지중 너의 모후 병환은 엇지 되며, 불초자를 생각흐사 얼마나 늑기시난지 셔권의 드러가 약을 어더 도라오다가 정성이 부족흐여 불칙한 사형 손의 희을 바다 일월 못 보난 병신이되야 창강 말이 벽파상 십이 세 어린 거시 안땡되여 볼 수 업고, 목판 한 쪽을 부여 타고 바람 부는 디로 물결 치는 디로 씨밀여서 중국의 유락흐여 잔명을 보존하야 일신은 무량흐나 부모을 생각흐고 고국사를 생각흐니 실푼 맘음

쓴칠 나리 저이 업네. 망극할시 너이리야! 명천은 성의의 사정을 살피소서.”
하며 누무리 비오듯 하여 양천자탄으로 전전불미한들 뒤라서 위로할고(348쪽)

성의는 자신을 ‘병신’이라 칭할 만큼 눈이 멀었다는 사실 앞에 크게 좌절하고, 부모를 그리워하고,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 더욱 고국을 향한 마음이 절실하였다. 바로 그의 절실함과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안맹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기러기의 전신(傳信)을 통한 모후의 편지라는 사실은 성의의 지극한 효성에 비견할 만큼이나 지극한 모성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모후를 향한 효심에서 시작된 여정과 그 속에서 두 눈을 잃고, 다시 시력을 회복하는 과정 모두 ‘효의 대상자’인 모후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효의 실현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적성의전>의 주제의식을 더욱 강조하는 설정이라 하겠다.

기러기 전신(傳信)을 통한 모후의 편지는 성의의 개안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를 통해 채란공주와의 결연의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을 한다. 채란공주와의 결연이 실현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성의의 개안이었기에 개안의 현장에서 모후의 편지를 직접 읽어주는 존재가 채란공주라는 점 또한 매우 뜻 깊다.

성의와 채란공주의 인연은 성의와 호승상의 인연처럼 뛰어난 단저 부는 솜씨가 계기가 되었다.

꺾창고침 명월야의 처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신세를 자탄하다가 사향일곡을 만드려 단소로 푸러니니 의원헌 단소성이 월하의 늪피 써서 사람의 의을 쓰는 듯하더라. 잇더 마참 치란공주 완월누의 올라 거문고을 히롱하더니, 문

듯 옥저성 말근 소리 풍편의 들이거늘 공주 옥수로 거문고을 치며, “기특호도다! 이 곡조 기묘하다! 너의 거문고 소리의셔 더 하리 업건마는 엇더한 선관이니 곡조를 읊어 진세을 회롱호는소다!” 호고, 즉시 시너 백옥을 명호야, “이 소리 나는 곳슬 아라오라.”(346쪽)

우연히 성의가 부는 곡조를 듣게 된 채란공주는 시너 백옥에게 명하여 성의와 마주하게 된다. 성의의 뛰어난 재주와 빼어난 외모에 마음을 빼앗긴 채란공주는 성의의 심회를 위로해준다는 명분을 앞세워 성의와의 만남을 자주 이어가고자 한다. 성의 또한 채란공주의 재주에 마음을 빼앗기고,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깨닫고 마음을 열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남녀가 사사로이 정을 통하여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인 가르침이나 덕목이 아닌 성의의 안행이었다.

(7) 차시 성의 마지못하여 시비를 쓰러 완월누의 올라가 레한디, 공주 월하의 안자 그 동자의 거동을 살펴보니 희동 명월리 구름 속의 잠짓 듯한지라. 비록 멩인이나 옥안선풍과 표표한 기상이며 활달한 성심이 음성의 낮타는 니 범인과 크게 다른지라. …중략… “니 일즉 시부가사와 오음육율을 더 강 알거니와, 금야의 그디의 단저성을 드른이 가장 신기한지라. 다시 듯기 바라나니 한 번 수고를 앗기지 마르소서.” 성의 승명호고 단정이 안자 월호의 슬피 부니 그 소리 쳐량호야 일히일비로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호는지라. 공주 탄왈, “그디 반다시 범인이 안이로다. 진실노 단구의 치봉이 우거지지노도다.” …중략… 공주 침소의 도라와 성의 멩인되물 한탄호며 전전불미하여 삼을 리루지 못호더라. 잇디 성의 처소의 도라와 백옥을 보니고 낙누 차탄 왈, “니 공주을 보지 못하나 반다시 범인은 아니로

다.”(338~342쪽)

(ㄴ) 잇디 공쥬 니궁의 잇다가 주렴을 짓고 성의를 바리보니, 평월리 벽공의 걸인 듯 호고 표표정정한 풍치가 전일 월하의셔 볼 씨 보단 십비나 더하더라. 심중의 그윽키 그 안땡되믈 의연하여 기리 한탄하더라. 석양이 되믈 황계 좌을 파하시고 [금은] 보퉁을 마니 상스호시고, 그 안땡하믈 가셔다 하시더라.(346쪽)

성의와 채란공주의 만남은 시서와 음률이 흐르는 밤이었다. 청춘남녀의 사사로운 감정이 피어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성의의 안땡은 결연의 가장 큰 장애였기에 채란공주의 안타까운 마음은 점점 깊어만 갔다.

차시 공주 도라가 춘란으로 하여곰 말삼을 전하여 왈, “천고의 기희하고 이상한 이리라. 치하함을 충양치 못호거니와 그디 근본을 일정 기이믈 진실노 안여자의 티도라. 그러나 이제로부터 니외현격 호엿시니 다시 뵈을 의논는 고사하고 지닌 일을 생각호오변 참고호미 마나오나, 바리거디 기체 안보호소서.” 호거늘 성의 청파의 사례 왈, “소국 천인이 옥주의 하히지턱으로 관디하심을 입사오니 그 은덕을 생각호오면 티산 낮차웁고 하히가 앳튼지라. 결초보은하려 호옵더니 천도 유의하사 고목이 싱화호고 절쳐의 봉싱호여 두 눈이 열여 만무를 다시 보고 부모의 안후을 듯사오니 것분 마음 충양이 업사오나 자금 이후로 화산이 기리 멀고 약수가 깎사오니 다시 뵈을 기약이 묘연한지라 창결호물 엿지 다 충양호오릿가. 그러나 귀체 안강호옵소서.”(370쪽)

위 인용문을 보면 성의의 안땡으로 인한 장벽이 기러기의 전신(傳信)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채란공주의 안타까움 또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두 남녀의 사사로운 만남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성의와 채란공주의 만남에서 가장 큰 장벽이었던 안맹이 해결되자 이제는 남녀의 사사로운 만남이 가장 큰 장벽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장벽은 곧 왕명에 의해서 해결되며, 성의에게는 새로운 자격과 지위가 부여된다.

“네 본디 옥경 선동으로 하계의 적강하미로다. 짐이 오늘날 네 거동을 보니 빅옥경의 노는 신선 향안전의 근사한 듯십푸니 진세간의 기남자라.” 하시고 호승상을 도라보사 왈, “경의 지인지감은 타인이 밋지 못할이로다.” 하시면 성의를 못너 사랑하시고 가라사디, “아직 성의를 경의 집으 머물르게 하라. 너 저로 하여금 의중지인을 삼으리라.” ……중략…… 천자 가라사디, “전일 단져 부던 아히라. 호승상이 남일국의 갖다 회환시의 다리고 왔거늘 비록 아람다운 마음이 간절하나 눈이 어둡기로 미양 이달나 하더니, 이제 두 눈을 찌셔 일월을 다시 보고 그 근본을 알고 보니 강남 안평국 왕자라. 계 실상을 드룬이 쏘한 효자라 무삼 의심이 닛슬잇가? 본디 강남이 길이 수로로 연파누말인고로 간삼 연하여 조회를 밋는니 이제 성의 엇지 근본을 속이며 너 보건디 진짓 왕자의 기상이오 진세간 호걸지상이오니 리린 영지를 다시는 보지 못할진니 너 생각건디 옥계 치란으로 더부러 비필 정하신가 하늘이다.” (372~374쪽)

중국 황제는 호승상에게 성의의 개안에 얽힌 기이한 일과 본래 성의는 안평국 왕자인데 모후의 병을 고치고자 서역에 일영주를 구하러 갔다가 고초를 겪은 사연을 듣고는 성의를 부마로 삼고자 결심한다. 본래 황제는 그동안 성의가 뛰어난 인물임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마음에 걸려했으나 성의가 시력을 되찾게 되자 공주의 배필로 삼고자 하는 것이

다.

성의는 공주의 부마가 되기 전에 본인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곧 일종의 영웅적 면모의 발휘이며, 성의가 영웅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각설, 잇디는 황제 즉위 십삼 연 춘삼월리라. 춘풍은 유의하여 만물을 자성
하고 십이원중의 봄이 드리 화초가 만발하여 향기는 심의하고 춘조는 다정하여
빅반 제할제 상이 황극전의 전좌하시고 알성을 보이실시 호승상이 성의를 보시
고 과장의 드러가물 권하시거늘 성의 장중의 드러갈시 승상이 과장 여비를 일
일이 차려 주시거늘 성의 즉시 장중의 드러가 글제를 살펴보니, ‘유상곡수의
혜풍이 화창’이라 하였거늘, 빅옥연의 떡을 가라 산호동필 덤복 푸러 시지을
펼쳐 녹코 일필휘지하여 일천의 선장하니 상시관이 글장 밧드러 상계 올려 왈,
“일천한 글장이압기 올이나니다.” 상이 친이 봉니을 기탁하니 이는 곳 적성
의의 글리여늘 용사비등한지라. 상이 디찬 왈, “성의의 시지을 보니 석일 이두
의 문필을 겸하였도다.” 하시고 금방의 일흠 불너 장원급제를 하이시고, 어주
로써 말이 타국의 외로우를 위로하신 후의 또 상이 장원의 손을 잡으시고 가라
사디, “이제 경이 원방 사람으로 금조의 입신양명하여 일흠이 사희의 진동하니
엇지 아람답지 아니하리오? 원컨디 짐이 한 쌀을 두어쓰니 비록 님사의 덕행
은 업스나 가히 군자의 건질은 바다 조님할 만하니 과도이 욱되지 아니할지라.
경으로 부마을 정하니 사양치 말느.” 하시디 장이 니심는 소원이나 거짓 사
양 왈, “성상 명감지하의 국히 황공호오나 소신이 외국 인물노 천은이 망극호
사 천조의 입신양명호오니 망극호와 폐호의 하히갓스온 은턱을 만분지 일리나
갑풀가 하우겨늘 가지록 소신으로 부마을 정하시니 더욱 황감호옵고 공주 귀체
의 욱될가 저어호오니 바리건디 복원 황상은 신의 사정을 살펴사 부마지교을

거두사 소신의 외로운 몸을 편케 하시믄 천만 바라오니 복원 폐하는 살피소서.” 상이 청과의 부륵하사 가라사디, “경은 과도이 경양치 말나.” 하시고 즉시 할림학사를 제수하시니 할림이 더욱 감사하야 천은을 축사한디 천자 어악과 청동쌍기를 사급하시고 실너을 부루사 수삼차을 진퇴하시니(378~382쪽)

성의를 호승상의 권유로 알성과(謁聖科)에 응시하였다가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제수하게 된다. 지금까지 성의가 보여준 능력은 지극한 효성과 그를 통한 조력자들의 도움, 신이한 단저 연주 솜씨, 시서와 음률에 능한 점과 같은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에서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를 제수하는 것은 온전히 성의의 능력에 의해 이룬 것으로 부마의 자격이 갖추어졌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외국인의 신분으로 중국 황실의 부마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성의가 그 나라의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서 곧 그 나라 관직에 나아가도 된다는 일종의 자격을 획득한 것이며, 이것은 곧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엄연히 중국에 소속된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부마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성의가 장원급제 하는 과정을 겪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중국 황실의 부마로 간택되기 위한 자격의 획득과 그에 걸맞은 인물임을 검증하고 증명하는 것으로서 성의의 뛰어난 인물됨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즉 성의의 부마 간택과 장원급제는 개안을 통해 다시 태어난 성의에게 새로운 성장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이란 공간은 성의의 개안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효의 고난’이라는 상처의 공간이었지만 기적과 같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었다. 그리하여 개안은 곧 성의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준다.

3) 영웅성 획득으로서의 ‘중국’의 의미

<적성의전>에서 ‘중국’이란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여정과 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성의의 고난과 그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부여되는 곳이다. 이처럼 ‘중국’이란 공간은 단순히 어떤 한 측면의 속성만을 지닌 곳이 아닌 이중적인 특성을 지닌 공간이기에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의 공간은 천상과 지상, 비현실과 현실 등의 두 체계로 이원화된다.⁴¹⁾ 성의의 효가 고난을 겪는 곳이자 개안담이 펼쳐지는 공간인 중국은 실존하는 지상의 현실적 세계인 동시에 성의의 개안이라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곳으로 초월적인 공간의 특성을 보여주며, 이는 곧 고전소설에서 말하는 천상계적 속성을 지닌 공간이다. 즉 중국이란 공간은 이원화된 고전소설의 공간적 특성의 양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중적 속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인공 성의가 고난을 극복하고, 개안을 통한 시력 회복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영웅성 획득의 과정을 보인다. 특히 서천서역이나 중국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성의가 자신이 지닌 능력이나 스스로의 고난 극복을 통한 목적물 획득과 탐색의 과정을 이겨낸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 그가 지닌 깊은 효성에 감복한 선인이나 천생 금불보탑존자와 같은 천상적 존재의 도움을 받거나 호승상과 같은 조력자의

41) 김선현,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여성 해방 공간, 옥연동」, 『고전문학과 교육』 21, 2011, 282쪽.

등장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었다. 따라서 개안 후 성의의 변화된 모습은 영웅적 인물로의 성장과정을 담고 있기에 영웅성 획득의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중국’이 곧 ‘영웅성 획득’의 공간임을 의미한다.

한편 ‘영웅성’에 대한 개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적성의전>의 ‘영웅성’은 곧 ‘효’로 대치되며, 성의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았던 뛰어난 외모와 민첩한 재주, 어진 마음과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의 형상화는 영웅의 형상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성의의 효행은 곧 영웅으로서 성장하고, 영웅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즉 적성의의 영웅성은 효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영웅담에서는 주인공의 군담이 펼쳐지며,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부마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성의전>에서는 효가 영웅의 가치를 재단하는 기본적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장에서는 주인공 성의가 중국이라는 공간에서 개안 후에 겪었던 새로운 변화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그의 영웅성 획득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이라는 공간의 속성 또한 밝히 고자 한다.

<적성의전>에 등장하는 세 개의 공간을 비교해보면 서천서역과 안평국은 비교적 일관된 고전소설의 공간관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평국의 경우 지형도적인 측면에서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철저하게 지상계적인 특성을 보이며, 현실에 있을 법한 공간으로 어느 정도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주인공 성의가 태어난 곳이자 구약 여정의 탐색이 시작되는 지점이며, 다시 복귀하는 공간으로 작품의 현실성과 지상계적 속성을 부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안평국이라는 공간을 이 작품이 쓰인 동시대인 ‘조선’으로 설정했다면 오히려 작품이 쓰이고 읽혔던 동시대의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야기’ 혹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서사의 진행에 있어서 가상의 공간이나 비현실적인 속성, 혹은 천상계적 속성은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작품의 설득력과 타당성이 허구적 설정으로 반감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안평국을 지형도적인 측면에서는 가상의 공간으로 설정하였지만 ‘중국’과 교류를 하는 국가라는 설정과 현실에 있을 법한 공간으로 형성화하여 ‘서천서역’이라는 가상의 공간과는 또 다른 의미를 두어, 차별화된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안평국이란 공간은 본래 성의가 겪은 여정의 시작과 복귀의 의미를 지닌 곳이기 때문에 성의가 서천서역이나 중국에서 겪었던 신이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공간과는 분명한 구별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비록 가상의 공간일지라도 현실적이고 지성계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천서역의 경우 안평국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공간 혹은 불교와 무가에 등장하는 종교적 추상성을 지닌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공간적 속성은 안평국과는 반대로 지극히 천상계적 특징을 보여주는 곳으로 현실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속성을 지는 공간이라 하겠다. 죽은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다는 일영주가 있는 곳이며, 사람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공간으로 지상계와는 전혀 반대되는 신의 영역으로 신선만이 왕래할 수 있고, 천생금불보탑존자(天生金佛寶塔尊者)가 사는 곳이다. 이는 곧 안평국이라는 현실적 세계관과 이원화된 천상계의 공간이며, 이곳에서의 일들은 성의의 효행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일영주’라는 생명을 다스리는 치유약으로 증명해주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의의 지극한 효성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신으로부터 인정받고, 효행 동기의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공간으로 철저하게 초월적 속성을 지닌 천상계의 특징을 따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두 개의 공간인 안평국과 서천서역과 달리 중국이라는 공간은 고전소설의 이원화된 공간의 개념에서 조금 변형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우선 중국이라는 공간의 속성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이며, 더불어 지상계에 속한 공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이고 지상계적 속성을 지닌 공간으로의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적 속성은 초월적인 일이 일어나는 곳이자 천상계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어 이중적 속성을 지닌 공간이라 하겠다.

특히 <적성의전>의 여러 공간 중에서 중국과 안평국은 지상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속성과 의미는 천상계와 지상계로 다시 이원화되어 나타난다. ‘중국:안평국’은 ‘국외:국내’라는 지리적인 거리감으로 바뀌었으나 ‘중국’이란 공간의 내면에서는 기이하고 이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천상계를 대신하고 있기에 이것은 곧 지상세계의 이원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적성의전>에서 중국이라는 현실의 공간을 차용하여 천상계적 속성을 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인 서사에 현실의 공간을 차용함으로써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일들에 현실감과 사실성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성의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현실성과 사실성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적성의전>이 내세우는 ‘효’의 가치를 더욱 설득력 있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효’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당연히 지켜야하고 자식으로서 정성을 다하여 지켜야하는 덕목으로 효도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불효자’라고 비난하는 만큼 인간사회에서 꼭 지켜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삶 속에서 중심이 되는 관심사와 가치라 할 수 있고,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사실적인 삶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즉 ‘효’라는 정신은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성을 지닌 가치이기에 그것이 실현되어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간 또한 현실감과 사실성을 갖춘 곳이어야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그 가치의 평가 혹은 대가 등이 더욱 값진 것으로 비추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감동의 요소는 가보지 못한 곳이나 혹은 동경의 공간과 같은 선망이 되는 대상의 속성을 가미시켜주는 것으로 중국이란 현실적 공간에 천상계적 속성을 담아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눈을 잃고 유랑하던 성의에게 단저 부는 숨씨는 호승상에게 구출되는 계기와 채란공주와의 만남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바다를 유랑하던 성의가 호승상에게 발견되는 과정도 평범한 일은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신분조차 알 수 없는 유랑객을 중국 후원에 머물게 해주고, 공주와의 인연을 이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련의 사건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비현실적인 측면에 가깝다. 무엇보다도 중국이란 공간에서 보여주는 가장 비현실적인 사건은 기적적으로 성의가 시력을 회복하는 개안담에서 부각되어 나타난다.

성의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안평국에 있던 기러기는 모후의 편지를 갖고 성의가 지내고 있는 중국 황실로 찾아가 소식을 전해주는 영험함을 보여준다. 또한 기러기가 전해준 편지를 계기로 항의의 습격을 받아 안맹이 되었던 성의의 두 눈은 광명을 되찾게 된다. 이처럼 거듭되는 성의를 둘러싼 기적과도 같은 신이한 일들은 모두 중국이란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현실적 세계이자 지상계적 설정인 곳에서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초월적인 현상이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할 일들로 지극히 천

상계적인 속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기이하고 신이한 일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성의에게 일종의 자격 증명 혹은 사회적 지위 획득으로 인한 성장을 이루게 해주는 곳이다.

성의에게 중국은 안평국에서 벗어난 국외의 공간이며, 황제의 말에 따르면 ‘본디 강남이 길이 수로로 연파누말인고로 간삼연호야 조회를 맞느니’⁴²⁾라고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안평국은 중국과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중국이 조회를 받는 입장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두 나라의 관계에서 중국이 더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나라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성의가 중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장원급제를 한다는 것은 부마 간택의 정당성 혹은 적법한 인물이라는 것의 증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효성이 깊은 효자에서 험난했던 구약 여정을 겪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과정 중에 성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지난날 단지 착한 심성과 효성을 지녔기 때문에 차자임에도 왕위계승에 거론됐던 것이 아니라, 왕위계승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까지 함께 갖춘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증명과 능력 발휘의 공간이 안평국이 아닌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중국 황실이 주관하는 과거에서 증명되었기에 더 큰 가치와 훗날 성의가 왕위계승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의가 중국 황실의 부마로 간택되는 것과 장원급제는 개안을 통해 다시 태어난 성의에게 새로운 성장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준다. 또한 이는 곧 성의라는 인물이 안맹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개안이라는 회복

42) <적성의전>, 374쪽.

과 변화의 계기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획득해 내는 새로운 성장의 과정을 보여준 것으로 일종의 영웅으로서의 능력과 영웅성의 획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성의가 보여주는 일종의 자격 증명 혹은 사회적 지위 획득으로 인한 성장은 ‘효’로 대치되었던 그의 영웅적인 면모가 본격적으로 발휘되어 영웅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곧 영웅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영웅으로서의 성장 과정이 시작되는 개안의 시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개안 후에 성의에게서 보이는 변모는 중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유교적 영향을 받아 이념의 변화를 그려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성의가 일영주 획득을 위해 찾아갔던 서천서역은 천생금불보탑존자가 있는 곳으로 불교적 공간이며, 초월적인 공간인 동시에 천상계적 속성을 지닌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서역에서는 성의가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마다 선인이나 천생금불보탑존자와 같은 천상계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극복한다. 그리고 이는 성의가 기러기 전신으로 개안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성의의 개안 직후부터는 중국이라는 유교적 세계에서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인정 받는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 알성과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제수 받고, 입신양명의 과정을 통과한 것은 유교적 세계에서 일정한 위치를 획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황제에게 부마의 자격을 부여 받은 것 역시 유교적 세계에서 새로운 지위와 자격의 획득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적성의전>이 서천서역에서 보여주던 불교적 세계에서 벗어나 중국이란 공간에서 유교적 이념의 변화를 겪고, 유교적인 인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의를 개인 시점부터 시작되어 새로운 지위와 자격의 획득을 통한 영웅성의 획득과 영웅적 면모를 지닌 인물로의 성장은 ‘중국’이란 공간에서의 이념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중국’은 주인공 성의가 유교적 지위와 자격을 획득하게 해주는 성장의 공간인 동시에 새로운 지위와 자격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영웅적 면모를 획득하는 공간이다. 또한 천상계적 속성을 지닌 공간이지만 개인 이후의 시점부터는 ‘영웅적 속성’이 강화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성의가 안평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와 자격을 부여받고, 비로소 고난에 빠져있던 성의의 효는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즉 영웅성의 획득은 효를 발현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한 것이다. 이처럼 효를 주제의식으로 내세우는 작품이지만 영웅성의 대표적 화소인 ‘군담’이 소거된 채 주인공의 영웅성이 확보·강조되는 설정 자체가 영웅을 곧 ‘효를 실천하는 자’라는 당대 보편적 가치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효의 완성과 복귀담

안평국은 효를 실현하기 위해 먼 여정을 떠났던 성의가 복귀하여 효를 완성하는 공간이며, 동시에 형 항의의 악행이 징치되는 공간이다. 항의의 징치는 <적성의전>과 마찬가지로 악형선제(惡兄善弟)의 형제갈등을 보여주었던 작품인 <창선감의록>의 화춘과 화진 형제가 화해를 통해 어긋났던 우애를 회복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이는 <적성의전>의 형제갈등은 주인공이 효를 실현 과정 중에 효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1) 악인 징치의 필연성

주인공 성의가 복귀하는 공간인 안평국은 <적성의전>의 효행담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자 항의에 음해로 고난을 겪어야 했던 성의의 모든 여정이 마무리되는 공간이다. 또한 항의에 의해 방해받았던 성의의 효행이 갈등을 극복하고 비로소 완성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성의의 효행과 복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해자 항의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적성의전>은 복귀 과정에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큰 항의의 방해와 공격이 이루어져 갈등이 최대한으로 증폭된 상태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온전한 해소가 이루어진다. 성의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갈등과 해소의 과정을 고찰하여 <적성의전>의 악인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항의의 징치의 과정과 그에 담긴 의미 또한 고찰해 보겠다.

부마 올히 너겨 즉시 서간을 써서 기러기 다리의 밋고 경계 왓, “니 종당의 네 모양을 그리련이와 우리 양인이 본국의 도라갈 기약을 두니 너난 자서이 드르라. 왕연의 서역의 드러가 일영주를 어더올시 형공이 비을 타고 마조 나와 일영주를 아신 후의 선인을 다 죽이고 니 눈을 멀혀 판쪽을 티여 희중의 밀쳐쓰니 일정 닳을 죽게 함이라. 형공이 나을 죽은 줄노 아러쓰니 너는 이 글을 전혀 나을 인도하라.”(394쪽)

성의는 본국으로 귀환하기 전, 기러기를 통해 모후에게 그간의 전후사정을 담은 편지를 전해주도록 한다. 이것은 항의라는 위협적인 존재에 의해 다시 복귀에 실패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일종의 보호 장치와 같은 것으로 고국에 도착하기 전에 또 어떤 변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담긴 것이었다.

성의는 서천서역에서 돌아오던 길에 일영주를 빼앗기고 두 눈을 잃었던 일을 왕과 왕후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이때 성의는 형 항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성의의 안평국 복귀는 형 항의의 처벌을 바란다거나 혹은 안평국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내세우기 위해 실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형 항의가 벌인 악행의 전모를 밝힐 경우, 부친과 모친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감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의는 부모에게 자식 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사조차 알릴 수 없어 걱정을 끼치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음에 고국 방문을 원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조차도 성의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고,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이를 두고 ‘하늘에 지은 죄’라고 할 만큼 부모 위하는 마음이 지극한 인물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와 관심

사는 오로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자 함이고, 그 어디에도 항의에게 복수를 하려는 계획이나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성의는 작품 안에서 일관되게 효를 위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기러기가 전해준 편지를 받은 왕비는 성의가 겪었던 고난과 안명이 되었던 일, 호승상에게 구출되고 중국 황실의 부마가 된 일 등, 그동안 성의가 겪었던 일의 전후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왜 그토록 효심이 깊었던 성의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그동안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못하였는지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적성의전>에서 악인 항의에 대한 징치나 형벌은 왕과 왕비의 개입 없이 진행된다. 왕과 왕비가 항의가 벌인 악행의 전모를 듣게 되었을 때는 이미 항의가 무사 태연에 손에 징치를 당한 후였다. 이것은 아무리 항의가 악인 일지라도 성의와 같은 친자식이며, 부모의 손으로 자식을 직접적으로 처단하는 것 또한 천륜의 도에 어긋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설정이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왕과 왕비는 항의가 무사 태연에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군의 예로 안장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식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왕과 왕비의 반응은 <적성의전>의 형성에 영향을 준 <선사태자입해품>이나 <선우태자전>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선사태자입해품>과 <선우태자전>에서는 악사와 악우의 악행을 알게 된 왕과 왕비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결국 <적성의전>에서 항의로 인해 발생된 갈등과 해소는 가해자인 항의와 피해자인 성의 두 형제의 문제로 응집된다.

성의와 항의 사이의 갈등은 지극히 일방적인 것으로 인물은 물론 제주도 뛰

어나고, 성품이 온화하여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 성의를 향한 형 항의의 일방적인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적장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불안과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이 적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본래 아우인 성의를 왕위계승자로 지목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출중한 외모는 물론 재주가 뛰어나고, 성품까지 온화하여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의 존재 자체가 항의에게는 본받을 대상이 아닌 위협의 대상이자, 불완전한 왕위계승의 원인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항의는 항상 성의를 해치고자 하는 불측한 마음을 품고 있었으며, 성의의 일영주 획득은 항의의 불안을 더욱 촉발시켜 성의를 죽이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또한 죽었을 거라 믿었던 성의가 중국 황실의 부마가 되어 공주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갑작스런 소식은 항의에게 본인의 지난 악행이 드러날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증폭시켰으며, 일영주를 구한 성의가 중국 부마의 자리에까지 올라 돌아오는 것은 곧 왕위계승을 위협하는 가장 막강한 위치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때 항의의 위기의식은 극도로 고조된다.

왕비 보기를 다하미, 전하 청과의 옥누을 흘이시고 비감하시더라. 왕비 기러기를 붓들고 통곡하여 슬어하시더니, 잇더 세자 형의 왕비 곡성을 듯고 더경하여 드러가 복지하여 엿자오디, “모후난 무삼 연고로 리러타시 비창하시난잇가?” 왕비 형의를 보시고 잠잠하시거늘 형의 리러나 사면을 살펴보니 서안의 일봉 서찰이 노얏고 또 기러기를 어로만지시거늘 자서이 보니 이난 곳 성의 필적이라. 형의 더왈, “서간을 보오니 성의 중국의 드러가 임신양명하여 부마가 되엿다하니 이는 부왕의 성덕이여늘 엿지 심장을 상하시닌잇가. 밧비 예단을 갖초와 마조 나가 거흐옵소서.” 하거늘 와비 즉일 예단을 갖초와 중노의 사신을 보니니라. 잇더

상이 척교호사, 형의로 증전을 모셔 써나지 말하시니라.

차설, 형의 마음의 해오디, ‘성의 일정 죽은 줄노 아러더니 잊지하여 사라쓰며 이디지 영귀하게 되엇는고. 만일 성의 곳 노오면 너의 전후 형적이 발각되리로다’ 가장 근심하다가 한 계괴을 생각하고 노복의게 분부하여 적부리를 부르라, 이 사람은 지용이 과이하니라. 적부리 하기를, “네 남필국을 쳐 항복바다 우리나라 지방을 널리라.” 하니 그 용맹이 절인지용을 가진지라. 이 날 형의 적부를 청하여 관디하고 왈, “그디 나를 위하여 오백군을 거나리고 중노의 나어가 미복하였쓰가 성의의 일행을 쳐 함몰하고 도라오면 천금상을 악기지 아니[호고 너 장춘]위 거 하난 날의 중님을 밋길거시니 그디는 심을 다하여 성사케 하라.”(402~404쪽)

항의는 성의의 복귀를 막기 위해 살해 계획을 세운다. 모후에게는 성의를 맞이하기 위해 예단을 갖추어 마중나가시라며 권하고, 자신은 뒤에서 몰래 성의를 살해할 계획을 꾸민다. 항의는 성의가 어떻게 살아서 중국의 부마라는 영귀한 위치에까지 올랐는지 의아해 하면서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적부리란 자를 보내 성의를 죽이라 명한다. 그에게 성의의 복귀는 위협이며,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형제간의 우애나 자신의 지난 행적을 반성하는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항의의 불측함은 성의의 행적과 더욱 대조되어 성의가 ‘효를 행하고 따르는 자’라면 항의는 ‘효를 방해하고 막는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의와 성의의 관계가 친형제이기 때문에 부정적 인물로서의 항의는 더욱 악한 존재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항의와 성의 사이의 갈등은 형제 사이의 우애의 문제가 아니다. 효를 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두 형제의 ‘효성’의 차이와 그 ‘효의 실현’ 과정을 통해 ‘효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항의와 성의라는

극과 극의 인물을 통해 갈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구도 역시 성의를 향한 항의의 일방적인 방해와 음해가 있을 뿐이다.

<적성의전>에 드러나는 주요갈등의 중심에는 항의가 있다. 첫 번째는 일영주를 구해오는 성의를 공격하여 죽이고자 하다가 두 눈을 멀게 만들어 바다에 버린 사건과 두 번째 갈등은 부마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오는 성의를 다시 한번 죽이고자 하는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성의의 친형이자 안평국의 적장자인 항의의 주도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성의가 본국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항의라는 적대자의 방해로 이겨내어야 '효의 실현'을 위해 길을 떠났던 성의의 험난했던 여정이 '효의 완성'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두 형제의 갈등은 항의의 사주를 받은 적부리와 안평국을 찾아온 성의 일행의 전투로 이어진다.

(ㄱ) 적부리 청이불문호고 달여드거늘 마자 쓰와 십여 합의 이르러 불분 승부런 이 문 듯 적부리 칼을 날여 황사를 칠시 황사 몸을 날여 칼을 피하더니 적부리 승승호야 함성호고 달여드니 성세 가장 급한지라. 잊지음의 기러거 강변의 울고 니왕호더니 물의 가 썩저 몸을 적셔 모리를 몸의 못치고 날기의 가득 실코 공중의 썩다가 살손다시 리려와 적부리 얼굴의다 뿌리니, 제 아무리 명장인들 눈을 쓰지 못하니 잊지 당적하리오?(406쪽)

(ㄴ) 적불이 정신을 진정하여 살펴보니 일원 소연이 말을 타고 진전의 횡행호문 제비 갖턴지라. 적부리 불승분기하여 달여드러 피전 칠십여 합의 불결승부러니, 기러기 썩 날기의 모리를 무쳐다가 불의 면상의 뿌린이 날기치는 바람의 두 눈에 모시가 드러가니 눈을 쓰지 못할 지음의 공주 칼리 번뜻하며 적불의 머리 마하의 썩러지닌지라.(408쪽)

항의의 명을 받은 적부리가 성의를 죽이기 위해 계획을 꾸미고 성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기러기와 공주, 그리고 중국 황실의 장수의 도움으로 성의는 적부리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다. 특히 모후의 편지를 전해주어 성의의 개안을 도왔던 기러기의 활약과 어려운 전투에서 적의 목을 직접 베어 승리를 이끌고, 위기 속에서 돋보이는 현명함으로 성의의 무사귀환을 이끈 공주의 활약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기러기와 공주의 활약은 <적성의전>의 악인이자 적대자이며, 성의에게 위협을 가하는 갈등의 주체인 항의를 직접적으로 처단하거나 축출하지는 못한다. 항의 또한 적부리라는 대리인을 통해 성의의 복귀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적부리의 패배로 계획에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항의의 악행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직접 자신의 손으로 동생인 성의를 죽이는 것으로 지난날의 패약을 다시 저지르려고 한다.

잇디의 항의 적불형제를 약속하야 보니고 소식을 탐지하더니 적불형제 공주 칼 아리의 죽음을 듯고 분기를 참지 못하여 왈, “니 적부리를 수족갓치 역이논디 불의형제 여자의 칼 쏘티 혼이 되어스니 장차 너일을 엇지 하리요. 결단코 성의를 죽여 후환을 덜이라.”(410쪽)

성의는 항의와의 갈등 속에서 직접 나서서 대항하거나 항의를 처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항의와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는 무사 태연의 손에 항의가 죽음으로 징치 당하게 되면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이처럼 <적성의전>에 드러난 악인 징치의 주체와 갈등 해소는 형제간의 화해나 악인의 반성이 아닌 악인의 처단과 죽음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어지며,

악인 징치의 주체 또한 선한 주인공의 능력이나 활약이 아니라 주변인물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흔히 고전소설에서 형제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방식은 악한 인물의 개과천선이나 반성, 그리고 선한 인물의 용서와 화해가 일반적이다. 그 비교의 예로 <적성의전>과 자주 언급되는 <창선감의록>을 들 수 있다.

<창선감의록>의 주인공인 화진은 화옥의 세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인물로 인물이 뛰어나고 성품이 어질어 화옥의 사랑을 독차지 하였다. 화진의 형 화옥은 화옥의 첫째 부인인 심씨에게서 태어난 인물로 화씨 집안의 장손이나 어리석고 거친 성품으로 화옥에게 애정을 받지 못하여 어머니 심씨와 함께 화진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괴롭히고 학대한다. 이처럼 <창선감의록>과 <적성의전>의 등장하는 두 형제 중에 유독 한 명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데 그 애정의 수혜는 모두 장자가 아닌 차자이다. 또한 그 애정의 치우침은 장자의 모자란 인물됨에 의한 것이다. 이때, <적성의전>과 다른 점은 <창선감의록>의 두 형제는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는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친형제라고 볼 수 없는 이복형제이나 <적성의전>의 항의와 성의 형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같은 친형제이다. 이처럼 두 작품의 갈등의 대상과 갈등의 원인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작품은 표면적인 갈등의 구조로 보았을 때, 형제 사이의 다툼과 갈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작품의 주제의식이 형제 사이의 우애를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 해결 방식의 차이와 결말의 의미를 본다면 두 작품이 형제의 갈등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주제의식의 지향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창선감의록>은 화진을 괴롭히고 모함하며 박해하던 화춘과 심씨가 화진의

덕행으로 감화되어 비로소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며, 개과천선하여 선한 본성을 깨우쳐 용서와 화해를 하는 것으로 갈등이 해결된다. 또한 개과천선한 장자인 화춘이 가문을 계승하여 화씨 집안을 이끄는 것으로 유교의 장자의식이 반영된 결말을 보여준다.⁴³⁾ 반면에 <적성의전>의 갈등 해결의 방식은 <창선감의록>에 비해 악인 징치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친형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성의를 죽이고자 계략을 꾸민 항의는 깨달음이나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악인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그의 악행은 친형제인 성의를 죽이고자 하는 폐악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자신의 수하였던 태연이라는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로써 <적성의전>에서 나타나는 악인 징치는 ‘죽음’으로 성의를 방해하는 방해자가 제거되는 것으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다.

<적성의전>의 갈등 해결의 방식은 항의의 죽음으로 징치되는데 이것은 <창선감의록>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선한 심성의 회복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창선감의록>과 <적성의전>의 형제 갈등 양상을 비교하여, 두 작품은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권성징악형 고소설의 인물 구도가 가족 구성원, 특히 형제간의 갈등으로 구체화하여 나타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특히 <창선감의록>과 <적성의전> 모두 악하고 착한 형제간의 갈등을 소설 전면에 내세우면서 형제간 우애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지적⁴⁴⁾한 바 있으나, 이는 두 작품에 드러난 표피적인 형제 갈등 구조에 치우쳐 두 작품의 갈등 해결 방식의 차이가 가져오는

43) 화진을 포함하고 박해하는 악인 설정의 인물은 화춘과 심씨 외에도 조너와 범한 같은 주변 인물이나 혹은 화진의 부인인 윤여옥에게 혼인을 강요하는 것처럼 간접적인 고난을 겪게 하는 인물도 있지만 형제의 갈등을 중심으로 논하는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44) 김효실, 앞의 논문.

결말의 의미와 주제의식의 차별화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적성의전>에서 항의가 죽음으로 징치되는 것은 이 작품이 형제간의 갈등을 다루었으나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적성의전>의 항의와 성의도 <창선감의록>의 두 형제처럼 화해와 용서의 결말로 이어졌어야 한다.

(ㄱ) 공직 이에 당에 느러 머리를 두다려 체음호고 소 정성이 나와 꾸러고 왈, 춘의 죄 비록 무상호으나 몸의 상복이 잇스오니 원컨디 용서호쇼셔 부인이 진으에 경상을 가이호고, 림소져에 낫출보아 부득이 스호야 이에 공즈의 손을 잡고 통곡호며 춘을 도라보아 왈, “인심이 처세호미 부모를 우러러 섬기다가 부피 기세호면 형제의 탁호느니 너는 형제 불화호야 스스로 칼을 잡으려 호니 엇지 의 뚫지 으니리요. 성인이 운호시되 뉘 허물이 업스리요 마는 곳치미 귀타호니 이제 네 만일 마음을 곳칠진 디, 전에 착호 니보다 나호리니 너는 모르미 기심슈덕 호여라⁴⁵⁾

(ㄴ) 잇씨에 춘이 뉘웃침과 원함마씨의 스뭇쳐 통곡호며 스스로 꾸지져왈, 니 맛당이 죽어 디하에 도라간들 무슴 낫출 들고 형육과 림씨를 보리요 호고 밤이면 씬겘에 형육을 불으며 눈물이 흘너 칼머리에 그득호거늘 옥니드리 보고 슬허호물 마지 아니하더라⁴⁶⁾

인용문 (ㄱ)은 화춘의 악행을 지켜본 성부인이 화춘에게 개심하길 권하며 충고하는 장면이고, 인용문 (ㄴ)은 화춘이 자신의 과오를 깨우쳐 반성하며 착한 심성으로 개심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처럼 <창선감의록>은 화춘과

45) 이래중 역주, <창선감의록>, 260~261쪽.

46) <창선감의록>, 338~339쪽.

화진 형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악한 심성의 개심’ 혹은 ‘본래의 선한 심성의 회복’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적성의전>의 항의는 화춘처럼 본래 선한 심성으로 감화되거나 지난 과오의 반성을 통한 개심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인물인 성의가 무사히 안평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방해자인 악인 항의라는 난제를 극복해야만 했다. 그 난제의 극복 방법은 <창선감의록>의 화춘처럼 악인 항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의의 용서를 받고 화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끝까지 악인의 모습을 보이는 항의에게 형벌을 가하거나 죽음으로 징치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항의는 성의의 친형제이며, 안평국의 왕위계승자이기 때문에 성의가 직접 나서서 항의를 징치하는 것은 일종의 반역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극한 효성을 지닌 성의가 형 항의에게 징벌을 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걱정과 슬픔을 안기는 것이며, 이는 곧 불효이기에 성의가 항의를 직접 징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이유로 <적성의전>에서 항의를 징치하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존재는 공주와 기러기, 그리고 무사 태연이다. 특히 태연은 공주와 기러기가 항의의 군사들을 물리치는데 힘을 보탠 것과 다르게 직접 항의를 참수(斬首)로 징치하고, 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절의(節義)를 보여주었다.

문득 뒤회로써 한사람이 칼을 들고 니다라 쭈지져 왓, “나난 당연의 비을 타고 중노의 마조 나가던 티연이라. 일운을 모로논 흥의 드르라. 네 전일 희중의셔 어진 디군을 죽이려 하거늘 말유하미 칼노 두 눈을 질너 모판쪽을 티워 희중의 밀치니 이는 사람의 할 비 아니라. 천도 명감홍사 상한 눈을 다시 쓰고 영귀하야

고국의 도라오니 질거 안이하는 지 업거늘, 네 호을노 포악하여 운기를 모르고 골육을 구지 희코자하지 무삼 원수로 그러하뇨?”하며 언미필의 칼을 드러 항의 목을 치니 머리 싸의 궁그는지라. 잇디의 보는 자 뉘 안이 상쾌하게 알이요? 보고 듯는 사람이 다 티연을 의기남자라 충허더라. 그러나 티연이 가로디, “니 이제 항의를 죽이디 장부의 울기는 더러스나 왕자를 죽여스니 나도 죽는 거시 올토다.”하고 자결하니 이는 후인을 경계하밀네라.(410쪽)

태연의 항의 정치는 친형제인 성의와 그의 부모인 왕과 왕비를 대신하여 주는 것으로 형제와 부모를 천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아무리 항의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안평국의 왕자이자 다음 왕위를 계승할 존재를 처단하는 것은 신하된 자로서 역적의 행위이자, 반란을 범하는 것이기에 태연이 아무리 대의(大義)를 위한 결단이었을지라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기 에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적성의전>의 악인 정치는 왕위계승의 문제와 긴밀한 상관성을 맺고 있다. 유교 사회에서 장자 중심의 가계 계승은 당연한 것이었다. <창선감의록>에서 빼어난 인물은 물론 재주와 인품까지 갖춘 화진 대신 모든 면에서 화진에게 뒤쳐져있던 장자 화춘이 가문을 계승하는데 이것은 장자 중심의 유교사회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화욱 역시 장자인 화춘보다 차자인 화진이 가문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 여기면서도 가문 계승은 화춘에게 물려준다. 반면에 <적성의전>에서는 왕이 직접 장자인 항의가 아닌 온화한 인품과 뛰어난 재주를 갖춘 성의를 세자로 책봉하려 하지만 신하들이 ‘천명(天命)’을 거스를 수 없다는 반대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장자인 항의에게 왕위계승을 물려준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왕위계승을 두고 발생하는 항의와 성의의 직접적인 갈등은 없다.

다만, 차자인 성의에 비해 모든 것이 비교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향의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릇된 적개심으로 인한 일방적인 갈등만이 있을 뿐이다. 성의를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는 왕은 자질을 중시한 것이며, 왕의 결정에 반대하며 ‘천명(天命)’이라는 유교적 질서를 강조하는 신하들의 반발은 ‘중세적 지배질서’인 유교적 사고와 그 폐쇄적인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파격의 충돌이라 확대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 역시 <적성의전>을 형제간의 갈등과 우애의 강조와 같은 주제로 가두어 해석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록 <적성의전>에서는 왕이 신하들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향의를 세자로 책봉하지만 장자 중심의 유교적 논리를 깨트리고 인물 중심의 세자 책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창선감의록>과는 분명히 변별성을 가진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향의가 왕위계승자로 책봉되었다는 것은 유교의 장자 중심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던 안평국의 사회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성의전>에서는 왕위계승자인 향의의 인물됨을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차자인 성의가 ‘얼골이 관옥갓고 풍치 슈려하여 세상 사람 갖지 안트라’고 매우 긍정적이고 뛰어난 인물로 서술된 것과 다르게 향의는 ‘심술이 불측하고 쓰거 어지지 못하여 미양 그 동성을 시기하여 죽이고즈 되’라고 매우 부정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철저하게 악인의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적성의전>은 성의의 효행담을 통해 ‘효의 실현과정’을 보여주는 만큼 향의와 더욱 대비된다.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부합하는 능력과 성품은 물론 지극한 효성까지 인정받고, 중국 황실의 부마라는 영귀한 자리에까지 오르는 과정은 영웅성의 획득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종의 효의 실현과정을 통한 왕위계승자로서 성의의 성장 혹은 검증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적

성의전>은 적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측한 심성을 지닌 항의가 왕위계승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차자인 성의의 올바른 심성과 지극한 효성, 중국에서의 입신양명을 통한 능력의 발현, 그리고 중국 황실의 부마가 되어 본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적성의전>은 적장자를 뛰어넘는 차자의 왕위계승에 따른 타당성의 획득과 유교적 제제의 극복을 무사 태연에 의한 악인 항의의 죽음으로의 징치를 통해 이루어냈다. 항의의 죽음은 곧 왕위계승권자인 적장자의 부제가 된다. 더 이상 성의가 왕위계승자가 되는데 따른 유교적 장자 세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의의 패악적인 행실로 결말을 맺음으로서 성의의 왕권 계승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해 줄 수 있었다.

즉 성의의 복귀담에서 드러나는 항의 징치의 의미는 <적성의전>이 지향하는 주제의식이 성의의 ‘효의 실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표면적으로 형제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성의의 ‘효의 실현’과 ‘효의 완성’을 위한 과정을 마련해주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근거로 <적성의전>을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주제의식을 지녔다고 볼 수 없으며, 형제간의 갈등은 성의의 자기희생을 통한 효행과 극복의 과정 등이 단순히 자식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하는 도리의 결과라고 단순히 치부할 수 없기에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닌 것임을 강조해준다.

2) 다양한 효의 실천과 진정성

안평국은 성의의 효행이 시작되는 곳이자 모든 여정이 끝나고 비로소 돌아

오는 복귀의 공간이다. 즉 효의 동기와 효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성의의 복귀는 곧 효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의가 안평국으로 돌아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효의 완성이라 볼 수 없다. 모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떠났던 성의의 효행은 일영주 획득을 통해 ‘효의 실현’이 완성될 줄 알았으나 항의의 방해로 두 눈을 잃고 본국으로의 귀환에 실패하여 성의는 두 눈을 잃고 타국에서 고난을 겪게 되었다.

한편 성의는 호승상 부부를 양부모로 모시게 된 것은 물론, 황제의 사위가 되어 부마로서 공주와 함께 황제 부부를 부모로 모시게 되었다. 성의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 외에 삶의 고난 속에서 새로이 맺게 된 또 다른 의미의 부모님이 생긴 것이다.

만약 성의가 개안한 직후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서사가 끝을 맺었다면 이것은 성의가 자신의 친부모를 위해 중국에서 인연을 맺은 양부모와의 절연을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한편으로 불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부모를 위해 친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 역시 크나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기에 어느 한쪽을 취하고, 다른 한쪽을 외면하거나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종의 딜레마(dilemma)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성의는 그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행동에서는 진정성이 깃든 ‘효행’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일일은 부마 기러기를 보다가 옛일을 생각하고 부왕께 주왓, “황상의 덕택과 호승상의 은공은 여천여히하오니 잊지 모로미 이져바리리요. 바리건디 부왕은 이 아히로 세자를 칙봉호소서. 소자 공주로 더러 중국의 가 한번 단여움을 바리나니다.” ……중략…… 바로 니전의 드러가 황후 낭낭게 비알하고 예단을 드린디 황후 환열호사 말이 수로의 무사 도달하물 반기시며 안평국 표문을 보시니 사연의

언어가 공순한지라. 잇튼날 공주와 부마 호승상씩으로 나아가니 승상 양위와 소제 [못니] 반기며 삼 연 기루던 정과 귀자를 나이 세자로 칙봉호물 더욱 길거하시더라. 이후로부터 천자 디연을 비설하시고 승상의 일가를 청호야 놀마다 길기니 천하가 티평호더라. 각설리라. 당연 추칠월 망간의 황제 봉호시니, 또 황 의통호시다가 진하사 삼 일 지간의 천봉지탁을 당호미 공주와 부마 초종례을 극진이 하고 지성으로 복제을 지너던이 또 명연 추구월의 호승상 양위 연만 구십이라. 기세하시니 호소제와 부마 공주 의통호물 부모갓치 하더라. 초종예을 극진이 하여 선산의 안장호고 삼연초토을 지는 후의 부마 환국할쓰슬 심각호고 신황제게 드러가 귀국호물 고한디 황제 못니 연연호시며 공주와 부마을 차마 늦치 못호사 디연을 비설하시고 수일을 서로 길긴 후 보화을 만이 봉호사 공주계 상시고 전별호는 정은 비할 디 업더라.(412~414쪽)

성의는 중국에서 안평국으로 귀환한 후에 후사를 얻어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게 하고, 벌써 삼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중국의 황제와 호승상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공주와 함께 못다 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성의는 황제와 황후의 장례를 극진히 하고 지성으로 복제(服制)를 지내 자식의 도리를 다하였다. 또한 그 이듬해에는 호승상 내외가 돌아가시자 성의와 공주는 자신의 친부모의 죽음처럼 애통해하며, 초종례(初終禮)를 극진히 하고, 선산에 안장하여 삼년상을 지낸다.

이처럼 성의는 자신이 입은 은혜와 덕을 갚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 친자식의 마음으로 극진하게 부모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황제와 호승상 부부에 대한 자식 된 도리를 모두 마친 후에야 진정으로 안평국으로의 완전한 복귀가 이루어진다. 즉 성의의 안평국으로의 온전한 복귀는 친부모와 중국의 양부모 모두에게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시점에서 이

루어졌으며, 이는 곧 성의의 오랜 탐색의 끝을 마무리하는 진정한 ‘효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적성의전>의 성의는 친부모와 양부모 그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거나 소홀함 없이 자식의 도리를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이로써 주인공 성의가 처음 모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험난한 길을 떠났던 일은 물론 두 눈을 잃고 유랑하면서도 왕과 왕비를 걱정하는 모습 등 그가 보여준 효성스러운 모습에 진정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며, 형 항의가 징치된 끝에 안평국의 왕위를 이어 받는 일 등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구실을 한다. 이처럼 성의의 효성에 담긴 진정성의 확인은 효의 가치와 함께 진정한 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효의 완성으로서의 ‘안평국’

안평국은 성의의 효행이 시작되는 곳이자 모든 여정의 끝에 비로소 돌아오는 복귀의 공간이다. 이는 곧 성의의 효행의 동기가 발현되는 공간이며, ‘일영주 획득을 통한 모후의 득병 치유’라는 구체적인 효행의 목적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 성의가 지나간 여정 끝에 효행의 완성을 이루어 내어 효를 실현하는 공간 그 자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영웅적 존재로 성장한 성의가 복귀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출발’의 공간이었던 안평국과 영웅적 존재로 성장한 성의가 ‘복귀’하는 공간으로써의 안평국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탐색담의 주인공은 탐색의 주인공은 고난 끝에 찾던 것을 찾게 됨으로써 왕

위에 오르거나 왕의 사위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일종의 탐색의 주인공의 힘든 여정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적성의전>에서 일영주 획득을 위한 구약 탐색에서 성의가 서천서역에서 일영주를 구한 것은 곧 탐색의 주인공이 고난 끝에 찾던 물건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성의전>의 탐색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항의의 방해로 성의는 중국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또 다시 새로운 여정을 겪게 되고, 마침내 안평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종료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탐색담의 구조와 확연히 구별되며, <적성의전>만의 매우 특징적인 복귀담의 구조라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인 탐색담의 구조와 다르게 목적물을 획득한 후에 바로 복귀로 이어지지 않고, ‘중국’이란 공간을 등장시켜 복귀의 지연을 의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인공 성의의 복귀 지연은 중국이라는 공간에서 고난과 회복, 그리고 영웅성 획득의 과정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안평국은 일영주 탐색을 위한 ‘출발’의 공간이었을 때와 영웅적 존재로 성장한 성의가 ‘복귀’하는 공간일 때, 공간으로서 부여받은 의미가 다르기에 양쪽 측면에서 변모의 주체가 되었던 성의는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그것이 ‘효의 실현’에서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서천서역으로 일영주 탐색을 떠날 때의 출발지점의 안평국에서의 성의는 효성이 깊은 안평국의 왕자였다. 그러나 모든 탐색 여정을 마치고 복귀의 공간으로서의 안평국에 돌아온 성의는 중국에서 입신양명하여 장원급제한 것은 물론 부마의 지위까지 획득하여 자기 성장의 과정을 거친 영웅적 면모를 지닌 존재로 변모하였다. 특히 항의의 정치는 영웅성을 획득한 성의에게 왕위 계승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는데 이때 안평국

이 성의의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준다. 이처럼 성의가 영웅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일종의 통과의례에 견줄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후의 병환을 치유하는 일영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떠났던 여정 속에서 본래 열 두 살의 어린 소년이었던 성의는 안맹이라는 극한 장애와 고난을 버텨내고 타국에서의 외로움의 세월 속에서 입신양명과 공주와의 혼인이라는 의례를 거쳐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이루어낸다. 또한 한림학사와 부마라는 새로운 지위와 권력의 획득은 영웅성의 획득으로 이 자체가 이미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효의 완성을 보여준다. 성의는 이미 모후의 병환을 고쳐 생명연장을 가능하게 한 것 자체로 효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능력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부모의 여생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돌아가신 뒤에는 극진한 정성으로 유교적인 제사까지도 완벽하게 치르는 것을 통해 효의 완성을 다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성의전>에서 본래 찾고자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모후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일영주이지만 완전한 탐색이 끝을 맺게 되는 서사 전반의 과정과 결말을 바탕으로 본다면 탐색의 주인공 성의가 진짜 찾고자 했던 실체는 ‘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성의가 온전하게 복귀를 마치는 것 역시 안평국으로 귀환한 후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양부모에 대한 극진한 예우와 효를 다한 뒤에 이루어지며, 중국 황실의 사위가 되어 부마의 지위를 획득한 뒤에도 끝나지 않던 여정은 마침내 탐색의 주인공이었던 성의가 안평국으로 복귀하여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즉 <적성의전>의 구약 여정의 시작과 끝이 모두 이루어지는 안평국은 기나긴 탐색담의 출발 동기와 복귀를 통

한 ‘효의 실현’과 ‘효의 완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IV. 고전소설이 갖는 효의 보편성과 그 가치

우리는 흔히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는 것을 ‘효’라고 한다. 지극히 일상 속에서 늘 지키고 따라야하는 보편적인 삶의 가치이자 때로는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평가받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혹은 타인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효’라는 사상에 담긴 우리의 정서나 정신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며, 그 무게만큼이나 효를 행하는 일이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예부터 효행에 관련된 이야기나 효자·효녀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들의 효행을 널리 전파시켜 좋은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처럼 ‘효’에 대한 관심과 강조는 우리의 삶을 아우르고 있으며, 이는 곧 문학에도 자연스레 수용되어 효행과 관련된 수많은 작품이 존재하고 전해지고 있다.

<적성의전>은 선행연구에서 밝혔듯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소설로 형성된 작품이다. <선사태자입해품>이나 <선우태자전>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서사 단락의 구성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친연성을 보이나 부처의 전생담이나 불교적 보시, 중생의 구제 등이 강조되었던 앞의 두 작품에 비해 <적성의전>은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어 불교적 정신이 많이 소거되고, 불교적 색채를 간직하게 되었다. 특히 부모의 병환을 치유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의 탐색이 이루어지며, ‘효의 실현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불교 설화와 소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적성의전>은 앞선 불교 설화에서 ‘선형악제(善兄惡弟)’의 갈등구도를 ‘악형선제(惡兄善弟)’로 변환하고, 중생 구제를 위한 불교적 보시(布施)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탐색담은 성의라는 개인이 부모의

병환을 치유하기 위한 탐색담으로 개인적 측면으로 변모하였다. 즉 <적성의전>은 그 연원을 불교 설화에 두고 있지만 ‘효’라는 사상과 가치를 내세워 작품의 가장 우위에 두고, 소설로 형성된 작품이다.

소설의 등장 이후로 효는 여러 작품에서 우위에 내세우고 강조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상 혹은 정신적 가치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소설 이전의 불교 설화에서 태동하여 효의 가치를 가장 우위에 두고 내세웠던 <적성의전>이 후대 효 관련 소설 작품 형성에 바탕이 되어주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 예로 <육미당기>라는 작품을 들 수 있다.

<선사태자입해품>과 <선우태자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던 <적성의전>은 다시 <육미당기>라는 작품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육미당기>는 <적성의전>의 구조적 틀을 계승하되, <구운몽>, <옥루몽>에서 영웅의 일대기가 전개되면서 주인공 격인 여성 인물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것을 수용했다.⁴⁷⁾ <육미당기>는 여러 다른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적성의전>에서 그 구조적인 틀을 계승한 것이기에 전체적인 서사구조나 그 맥락이 매우 유사하다. 신라 소성왕의 태자 김소선의 형제관계와 여섯 부인과의 결연 관계를 그린 것으로 사건의 순차적 전개가 형제 간의 모해담, 여섯 부인과의 결연담, 귀국 후 영웅적 자질을 드러내기 위한 왜국 정벌담으로⁴⁸⁾ 구성되어 있다.

두 작품은 악형선제(惡兄善弟), 부모의 병환을 치료할 치유제를 찾아 떠나는 구약 탐색, 악형에 의한 선한 동생의 안맹, 왕녀와의 혼인담, 기러기 전신과 개안 등 작품의 주요 모티브와 구조적 틀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이

47) 심치열, 「<육미당기>의 문화론적 의미 연구」, 『돈암어문학』 15집, 돈암어문학회, 2002, 74쪽.

48) 조춘호, 「<六美當記>연구(1)-작중 인물의 삶의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집 1권, 국어교육학회, 1984, 33쪽.

것은 두 작품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적성의전>과 <육미당기>는 악형에 대한 정치 과정에서 태도를 달리 한다. <적성의전>의 항의는 무사 태연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극단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는 반면, <육미당기>는 소선의 귀국으로 형 세징의 악행이 드러나자 부왕은 극형을 내리지만 소선의 간청으로 세징은 형벌이 감해지고, 착한 사람으로 개과천선한다. 더군다나 <적성의전>에서 항의와 성의는 친형제 지간이었고, <육미당기>에서 소선과 세징은 이복형제이기 때문에 친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형 항의의 악행과 죽음으로서 정치된다는 점은 ‘형제간의 우애’가 아닌 성의가 보여준 ‘효’의 실현과정과 가치가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육미당기>에서는 세징의 악행이 소선의 용서와 간청으로 극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개심(改心)하여 선한 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형제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오히려 형제간의 우애가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육미당기>에서는 <적성의전>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형제간의 우애’라는 ‘효’사상 이외의 또 다른 가치가 부각되었다.

두 작품의 공통된 모티브와 구조적 틀의 유사함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결말과 강조되는 사상의 차이는 설화와 무속신화, 그리고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넓은 층위에서 보편적인 정서와 가치로 수용되었던 ‘효’의 문학적 가치로서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효’는 유교적 덕목이나 도덕 윤리로서 사회를 지탱해주는 정신적 가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속에 수용되어 소재나 주제의식 등으로 여러 작품에 영향을 미치며, 일련의 서사를 이끌어 나가기도 한다. 또한 ‘효’가 일종의 작품의 소재 혹은 깨우침 등의 계기를 제공해주어, <육미당기>처럼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의식으로 ‘효’사상이 강조되어 나타나지만 그를 통해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효'에서 출발한 여정이 군담이나 염정담과 같은 다른 모티브 혹은 서사로 확대·재생산의 계기와 기회를 부여해준다. 이것은 곧 '효'가 문학 속에 수용되어 다양한 성향이나 시각, 혹은 취향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편성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고전소설 안에서 구현되고 있는 효의 모습과 범위는 그 작품 수만큼이나 매우 다양하다. 효행을 담고 있는 고전소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판소리계 고전소설인 <심청전>을 들 수 있다. <심청전>은 효를 행하는데 있어서 '자기희생의 효' 또는 '고난에 따른 효의 완성'의 모습을 보이며, 이것은 <적성의전>에서 성의의 효행과 닮아 있다. 특히 다른 층위의 작품임에도 개안담이 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두 작품을 통해서 효라는 주제와 함께 효행의 방식에 있어서 보편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효를 다룬 고전소설 작품으로 <진대방전>이 있다. <진대방전>은 도덕소설, 윤리소설, 가정소설 혹은 축출형 가정소설, 공안(公案)형 소설 등으로 관점에 따라 다양한 세부적 분류 체계에 속하고 있으나 효가 작품의 가장 중심이 되어 불효자였던 대방이 깨우침의 계기를 맞이하여 본래의 인간성을 되찾아 효자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진대방전>의 대방이란 인물은 성의나 소선, 심청처럼 처음부터 지극한 효행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효자로 악인의 형상에 가까웠으나 개심(改心)을 통해 착한 심성의 회복과 이를 통해 효자로 거듭나는 것으로 앞선 작품과는 차별성을 지닌 효행을 보여준다.

<적성의전>에서 강조된 효사상은 곧 불교 설화에서 비롯되어 <선사태자입해품>과 <선우태자전>의 영향을 받아 이것이 다시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문학적 태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적성의전>은 불교 설화의 소설화의 과정에서 구심점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효는 당시의 사회·문화·정치 등을 아울러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상적 기반의 핵심으로 효사상을 소설의 주제로 삼아 향유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동과 교훈적 깨달음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정서에 가장 적절히 부합하는 주제의식이었다. 그리하여 <심청전>이나 <육미당기>, <진대방전>과 같은 다양한 작품에서 효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자 하였으며, 그 정신적 가치의 추구가 많은 독자들에게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대중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와 가치였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적성의전>이라는 작품을 필두로 고전소설에서 효가 차지하는 보편성과 그 가치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적성의전>이 보여준 효를 통한 ‘영웅으로의 성장’은 효가 단순히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본연의 의무 혹은 도리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효는 곧 ‘영웅성’에 비견될 만큼 효를 행하는 자와 진정성을 지닌 효행의 가치를 한 차원 더 높은 것으로 끌어올렸다. 즉 효의 ‘영웅화’는 곧 효의 보편적 의미와 가치에 특별함과 신이성을 부가하여 효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시켰다는 점에서 <적성의전>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효와 영웅성의 긴밀한 상호관계는 군담계 영웅소설로 발전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전소설에서 효는 <적성의전>의 성의처럼 개인의 지극한 효성과 영웅성의 발휘로 주인공의 뛰어난을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창선감의록>처럼 가문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가계계승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힘의 원리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문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효의 발현이므로 이때 효는 충(忠)이나 열(烈)의 개념으로 확장된다. 한편 <육미당기>는 주인공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복귀한 후에 영웅적 자질을 드러내는 왜국 정벌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군담계 영웅소설로서의 특징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예로 들었던 두 작품 모두 효를 구하고 행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군담계 영웅소설이나 가정소설에서 효가 주제의식으로 특별히 강조되어 드러나지는 않아도 효가 근간에 깔려있으며, 이것은 곧 효가 가지고 있는 연속성의 가치를 보여준다. 즉 효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의 가치와 대중성은 고전소설에서 효의 연속성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작품으로 수용되어 그 힘이 발휘되었다.

이처럼 <적성의전>의 효와 그를 통해 발현된 영웅성은 고전소설의 발달 과정에서 효를 작품의 주제의식으로 강조하는 작품은 물론 군담계 영웅소설이나 가정소설에 보편성과 그 가치로 작용하여, 형성 원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적성의전>이 보여주는 효의 보편성과 가치가 고전소설이 갖는 효의 보편성과 그 가치인 것이다.

V. 결론

<적성의전>은 안평국의 왕자이자 효성이 깊은 인물인 성의가 모후의 병을 고칠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 서천서역(西天西域)으로 길을 떠나고, 형항의 불측한 모함으로 두 눈이 멀고 온갖 고초를 겪다가 중국의 부마가 되어 마침내 안평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 서사를 관통하는 일련의 정신은 ‘효’ 사상이다. 성의가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날 결심을 하는 것도 그의 효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두 눈을 잃고 타국에서 고초를 겪을 때 성의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것도 부모를 향한 효심 덕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본국으로 귀환하여 왕과 왕후를 모시는 것으로 지나간 ‘효’의 여정을 마칠 수 있었다.

이처럼 <적성의전>의 중심사상이자 주제의식인 ‘효’는 당대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던 유교적 덕목이었으며, 부모와 자식 혹은 가족과 나아가서 국가를 이루고 지탱하는 사상적 기반으로 받아들여지고 강조되던 사회였다. 이런 이유로 <적성의전>의 서사에서 펼쳐지는 주인공 성의의 ‘효의 실현’ 과정은 작품이 향유되던 시기의 독자들의 의식세계와 궤를 같이 했을 것이며, ‘효’를 중요시여기고, 강조하던 사회에서 주인공 성의의 지극한 효행은 깨달음과 감동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성의전>에 등장하는 세 개의 공간과 공간의 이동 속에서 보이는 신이하고 기적적인 요소는 작품의 흥미적인 요소로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주인공 성의의 ‘효의 실현과정’과 긴밀하게 작용하여 주제의식을 더욱 강조해주었다.

II장에서는 ‘효’가 우리 문학적 전통 속에서 어떤 모습과 정신으로 수용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삼국유사>를 통해 전승되고 있는 여러 효행 설화와 함께 무조신화인 <바리데기>, 극진한 효성을 보여주는 <심청전>, 그리고 <적성의전>을 통해 ‘효’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어 전승됐는지 그 문학적 전통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작품에 따라 ‘효’의 출발과 전개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부모의 몸과 마음을 헤아려 편안하게 살피는 것이 효행이자 ‘진정한 봉양(奉養)’이라는 점에서 ‘효’ 사상의 근본이 같음을 알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적성의전>의 서사공간에 주목하여 효의 실현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 개의 공간인 서천서역과 중국, 그리고 안평국에서 드러나는 탐색담과 영웅담, 그리고 복귀담의 모티브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세 개의 서사공간과 그 안에서 ‘효’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천서역이라는 서사공간은 탐색담의 모티브를 통해 성의의 효의 동기와 효의 주체자로서 자격의 획득을 의미하고 있으며, 중국은 영웅담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안명이 된 성의가 고난을 겪는 공간인 동시에 회복의 공간이다. 또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위의 획득과 성의의 성장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성의는 영웅적 지위의 획득과 자격이 부여되고 성의는 영웅으로 성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안평국은 성의의 효의 탐색여정이 출발하는 곳이자 복귀하는 곳으로 영웅으로 성장한 성의의 복귀와 함께 효의 완성이 이루어지며, 방해자의 징치와 왕위 계승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즉 성의에게 ‘효’는 ‘영웅의 자격’과 ‘영웅의 성취’로 작용하며, <적성의전>에서 ‘효’는 곧 ‘영웅성’을 뜻한다.

<적성의전>은 지극한 효심을 지닌 주인공 성의를 통해 ‘효의 실현과정’을 구현해냈으며, 철저하게 ‘효’라는 주제를 작품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적성의전>의 ‘효의 실현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형제간의 갈등은 ‘효’의 강조를 위한 일종의 악인 형상을 내세운 서사적 장치이며, 결말에서 항의가 죽음으로 징치되는 것 역시 ‘형제간의 우애’라는 주제는 강조되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IV장에서는 앞선 II장과 III장을 토대로 <적성의전>이 보여준 ‘효’의 의미와 가치를 통해 ‘효’의 보편성과 그 가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효’의 의미와 가치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여러 편의 효행설화와 무속신화인 <바리데기>, 자식의 희생을 통한 지극한 효성을 다룬 <심청전>, 그리고 <적성의전>을 예로 들어 ‘자식의 고난에 따른 효의 완성’이라는 보편적인 효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또한 <적성의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작품으로 보이는 서유영의 <육미당기>를 통해서 본래 <적성의전>이 가지고 있던 ‘효’의 의미를 계승하는 한편 형제간의 갈등을 통한 ‘우애’를 함께 강조하는 것으로 변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성의전>에서 강조된 ‘효’ 사상은 곧 불교 설화에서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문학적 태동을 보여주는 것이며, 소설화의 과정에서 구심점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효’는 당시의 사회·문화·정치 등을 아울러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상적 기반의 핵심으로 ‘효’ 사상을 소설의 주제로 삼아 향유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동과 교훈적 깨달음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정서의 가장 적절히 부합하는 주제의식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고전소설에서 효가 차지하는 보편성과 그 가치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김진영, 「완판 71장본 심청전」, 『심청전전집』 3,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고전 명작 이본총서, 박이정, 2004.

심치열, 『신화의 세계』,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이래종, 「창선감의록」, 『한국고전문학전집』 3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이지영, 「창선감의록」, 『한국고전문학전집10』, 문학동네, 2010.

이윤석 외, 「금방울전·김원전·적성의전·만연사」, 『연세국학총서』 34, 경인 문화사, 2006.

이재호, 『삼국유사』, 솔, 2002.

이헌홍 역주, 「조웅전;적성의전」, 『한국고전문학전집』 23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홍태한, 『바리공주 전집』 1, 민속원, 1997.

2. 단행본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61.

-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78.
-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제2책,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 조희웅, 『설화학강요』, 새문사, 1989.
- 최정락, 「적성의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한용운, 「역경의 급무」, 『佛敎』 총3호, 1937, 5.
- 황패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3. 논문

- 강진옥, 「삼국유사 <효선편>설화연구1 - ‘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학』 93, 1985.
- 김선현,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여성 해방 공간, 옥연동」, 『고전문학과 교육』 21, 2011.
- 김숙원, 「한국고대서사문학에 나타난 탐색담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 김현양, 「조선조 후기 ‘華夷觀’의 동향과 <적성의전>」, 『연세어문학』 25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 김효실, 「고소설에 나타난 형제갈등 연구 -<창선감의록>과 <적성의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남상면, 「적성의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 손미경, 「<적성의전>의 서사적 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신명래, 「적성의전의 서사구조와 소설사적 위치」, 『한국어와 문학』 8, 2010.
- 심치열, 「<육미당기>의 문화론적 의미 연구」, 『돈암어문학』 15집, 돈암어문학회, 2002,
- _____, 「「부용의 상사곡」에 나타난 평양의 문화적 현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제30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 양한석, 「적성의전에 나타난 탐색주지」,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유광수, 「정판본 <적성의전> 이본고」, 열상고전연구18, 2003.
- _____, 「세책본 고소설의 성립 연원과 제작 방식에 대하여 -향목동 세책본 <적성의전>(1915)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권, 한국고소설학회, 2010.
- 인권환, 「고대설화의 불교적 고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61.
- 조춘호, 「<六美當記>연구(1)-작중 인물의 삶의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집 1권, 국어교육학회, 1984,
- _____, 「적성의전 연구」, 『국어교육』 15집, 경북대 국어교육연구회, 1993.
- 최정선, 「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인 여성상」, 『불교학연구』 제10호, 2005.

ABSTRACT

Realization of "Hyo" (Filial Piety) in the Narrative Spaces of Jeokseonguijeon

Yeon An-na

Dept, of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Grae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Jeokseonguijeon is a story where Seongui, prince of Anpyeong-guk who is deeply devoted to his parents, loses his eyes and suffers many hardships due to his elder brother Hangui's vicious slander while traveling to Seocheonseoyeok (lands bordering on the west side of China) in search for *ilyeoungju* to cure his Queen Mother's disease but finally comes back to Anpyeongguk after becoming a son-in-law of the King of China. The central idea of this epic story is the thought of *hyo* (filial piety). Prince Seongui's determination to take a journey in search for *ilyeoungju* comes from his filial piety which helps him endure such misfortune and hardship during his journey to

strange lands. In the story, his long journey of hyo ends up living with and serving the King and Queen after return to his country.

As such, hyo as the central idea and subject matter of Jeokseonguijeon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fucian virtues in the society of that time and it was accepted and emphasized as a spiritual base that underlie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holds up families and even the country. The way that Seongui exhibited hyo in the narratives of Jeokseonguijeon would be in line with the mindset of readers of the time when the story was taking place. In the society that placed greater importance and emphasis on hyo, Prince Seongui's filial behavior must have been an exemplary and touching story among people.

Chapter II discusses how hyo has been recognized and accepted in the literary tradition of Korea. Specifically, the chapter explores the flow of literary tradition in terms of how the meaning and value of hyo have been accepted and transmitted, by looking at classic works such as *Baridegi* (a shamanic ancestry myth), *Simcheongjeon* (a story of one filial daughter), written under the influence of Jeokseonguijeon, as well as the folk tales of filial piety that have been passed on through *Samgukyusa* (The Heritage of the Three Kingdoms) or *Samguksagi*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Although such works show differences in how hyo begins and develops, they share the same value of what hyo is like in that true

filial piety is to keep both the bodies and minds of parents comfortable by understanding their physical and emotional needs.

Chapter III discusses the process of realizing hyo, with focus on the narrative spaces of Jeokseonguijeon. In terms of the story's motifs, the discussion distinguishes among the narratives of exploration, heroism and return which take place in three different spaces: Seocheonseoyeok, China and Anpyeongguk. The narrative space Seocheonseoyeok represents the motivation of Seongui's hyo and his qualification as a filial performer through the narrative of exploration. In the narrative of heroism, China is a space of hardship where Seongui becomes blind without returning to his country, but on the other hand, a space of recovery from such hardship. Further, Prince Seongui acquires a heroic status and grows more heroic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hardship. Anpyeongguk is a place where Seongui's exploratory journey begins and ends and a space where his hyo becomes complete with his return as a hero, obstructers/antagonists are castigated, and rewards are made for succession to the throne. Hyo for Seongui serves as heroic qualification and achievement, and in Jeokseonguijeon it means heroism. The fraternal conflict revealed in the process of realizing hyo is a narrative tool for emphasis on hyo, and in the story's ending the death penalty for Hangui suggests that 'no emphasis is placed on brotherly affection.

Based on the discussions in Chapters II and III, Chapter IV examines the universality and value of hyo through its meaning and value revealed in Jeokseonguijeon. For example, a discussion of the universal meaning and value of hyo is provided by taking a number of tales of filial devotion recorded in Samgukyusa, the shamanic ancestry myth Baridegi, Simcheongjeon which tells the story of one daughter's filial piety by self-sacrifice, and Jeokseonguijeon. This chapter indicates that the complete form of hyo is associated with overcoming hardships. In addition, Seo Yu-yeong's Yukmidangi which is thought to have been influenced by Jeokseonguijeon emphasizes brotherly affection through fraternal conflict, upholding the meaning of hyo shown in Jeokseonguijeon.

The thought of hyo emphasized in Jeokseonguijeon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constituted literary movements in the novelization of Buddhist tales and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novelization process. Further, at that time, hyo was considered most important in all areas of society, culture and politics because it was believed to provide a core value of underlying ideological bases. The thought of hyo themed in novels or stories helped form a public consensus and made the stories touching and enlightening. This would be the universality and value of hyo on which Jeokseonguijeon was intended to place emphasis.